

금주일언 말을 거칠게 하지 말며
말할 때는 마땅히 응보를
두려워하라. 악이 가면 재앙이 오니 과
망동이기에 몸이 돌아오리라.
(《법구경·도장품 222절》)

東大新聞

행 인 민 병 친
집 심 의 신
진 주 국 이 이 의 산
진 진 국 이 이 의 산
행 인 민 병 친

편집부: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227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강동 707 (7770-2057)

제 1158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1955. 10. 13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4년(불기2538년) 10월12일 (수요일)

동국인 가족음악회

대학발전의지 확인 장 될듯

중구예술제 행사중 절정

중구예술제 행사중 절정을 이룬 동국인 가족음악회가 오는 15일 오후 6시 만해광장에서 열린다.

(권민기사 12면)

지난 8일 민족무예대제전으로 막을 올린 중구예술제의 행사중 중구 지역주민과 동문, 학생, 교수, 직원 등이 참여하는 가장 대규모 행사인 동국가족음악회의 총연출은 이태범 군이, 무대연출은 최영택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연출담당) 씨가 맡으며 이동원, 박인수, 신형원, 노래마을, 조동진, 김원중등이 참가한다. 특히 동국가족음악회는 음악회라

는 형식을 이용해 동국인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여 참가하는 개인에게 소정의 입장료를 받아 동국발전기금에 적립하게 된다.

총연출자인 이태범군은 "이번행사는 첫째, 교육시장개방을 앞두고 민족대회가 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국인이 모여 동국발전의 의지를 확인하는 장이며, 둘째, 동국중흥한마당의 무산에 대한 후유증을 일소하는 기회이며 셋째, 학내의 분위기를 불태 학생, 동문들이 자연스럽게 모일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밝혔다.

민병천 총장

세종문화상 수상



민병천 (정치외교학) 총장이 '94세종문화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국방·안보분야에 발전을 기하고 관계학문 진흥에 공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의 공적을 치하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 9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있었다.

컴퓨터교육 위해 PC마련

전반적 공간 재배치 요구돼

면화분위기 조성, 관련, 학리관 및 해화관 등 각 건물에 PC실 마련 및 컴퓨터 구입 등 각 단과대 학생들의 고른 컴퓨터 교육을 위한 계획 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공간재배치위원회 (위원장=송석구·철학)는 과학관, 동국관, 원흥관 등 기존 전산실 컴퓨터를 486SX급 이상의 기종으로 교체하는 등 2백 30여대를 새로 구입해 각 건물에 설치할 예정이다.

각 건물의 PC실 및 컴퓨터 설치는 △동국관 L528 (40대), M201 (40대) △과학관 D114 (30대) △해화관 G102 (30대), G409 (30대) △원흥관 F409 (30대) △사범대 30대 (공간 조정중) 등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학

생들과 충분한 논의 후 최종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간재배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교육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면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내 모든 건물을 공간재배치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며 "이번 PC실 마련과 관련해 학생들이 함께 공간을 이용하는 공유개념을 가져줄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PC실 설치계획은 동국관 등 각 건물의 학생회실 이동 등 대폭적인 공간재배치의 시발점으로 세미나실, 독서실 마련 등에 있어서 각 과·단과 학생들의 이해 관계가 맞물려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학생 참여하는 민주제도 요구

총장직선제사수 위한 총궐기대회



◇고정환 부총학생회장장과 안진우 학생대행위원장은 1천5백여명의 학생이 서명한 용지를 재단측에 전달하고 있다.

'총장직선제 사수를 위한 일관동약 총궐기대회'가 제26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고정환 (야간경제4) 군 등 3백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지난 6일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제26대 총학생회와 총장직선제 사수와 자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학생대행위원회 (위원장=안진우·국어교육 4 이하 학생대행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야간강좌 총학생회 학생회장 객유찬 (영문3) 군의 사회로 진행된 총궐기대회에서 이진우에 모인 학생들은 "총장직선제 사수와 교수, 직원·학생이 참여하는 총장선출을 쟁취할 것" 등을 결의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고정환 부총학생회장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총장선출에 재단과 교수들만이 주체일수는 없으며 민주적 소양있는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직원과 학생의 참여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대행위원장 안진우군은 이날 집회에서 "지난선거에서 나타난 폐단을 막기위해 공정선거 감시단을 만들것"이라고 하고 "제도의 민주적 정착은 학교발전을 위한 합의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학생대행위는 지난달 26일부터 벌인 '총장직선제 사

수를 위한 범동국 서명운동'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총 1천5백46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번 서명운동의 의의에 대해 경상대 학생회장 최중준 (경제4) 군은 "당면 과제인 직선제 사수를 위한 학생들의 의지를 모아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15일까지 계속되는 제2차 서명운동 기간에는 교수와 직원을 중심으로 전개해 전 동국인의 의지를 모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가 끝난 뒤 부총학생회장 등 학생들은 1천5백46명의 서명을 재단과 학교측에 전달했다.

논문게재 특별연구비 지원

교원 연구능력 향상 목적

학술부 (부장=홍승기·무역학)가 '국내외 학회 학술지 논문게재 특별연구비 지원계획'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교원의 연구능력 향상과 학문수준 제고를 위한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다는 조건 아래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연구비를 지원받고 국내외 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지원내역은 국내 전국 규모 학회 학술지의 경우 △단독연구=1백50만원 △2인공동연구=1백만원 △3인공동연구=70만원이고 외국 학회 학술지의 경우는 △단독연구=3백만원 △2인공동연구=1백50만원 △3인공동연구=1백만원이다.

또 4인이상 공동연구 지원금은 '단독연구지원액'의 1.5배이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본교 전임교사 이상 교원 △신청기간 및 제출처=오는

10월 21일까지 학술부 △제출서류=국내외 학회 학술지 논문게재 특별연구비 지원신청서 (소정양식), 연구계획서 (소정양식).

한편 이 계획에 의거해 연구비를 지원받아 발표된 연구실적들은 95년 2월에 지급되는 특별연구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수동정

◇권기중 (불교학)=오는 22·23일 이틀간 열린 제5회 일종불교학술교류회의에 참석, '佛敎의世界化のたぬの東北アツア 佛敎の役割' 주제로 발표할 예정.

보리수

마음의 행위

초기 원시불교 경전의 하나인 중이함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비구들이여 나는 살아 있는 것을 죽이는 것(살생)에는 세가지가 있다고 설한다. 탐욕을 원인으로 하는 것, 증오를 원인으로 하는 것, 어리석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불교윤리에서 말하는 업(행위) 가운데 마음으로 짓는 탐·진·치의 세가지의 불선(不善)의 근본을 말한다. 비구어 말하면 이 세가지의 나쁜 마음이 작용을 하여 신체적으로는 살생과 도적질과 강간등을 자행하고 입으로는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과 이간질 하는 말과 포악한 말등 행동으로 언어로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짓는 열가지의 나쁜 행위를 십악업(十惡業)이라 하고 이와 반대로 하는 행위를 십선업(十善業)이라 한다.

요즘을 우리사회는 윤리도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물질의 풍요가 가져오는 그 이면에는 폭력과 삼인(三因)과 강도와 가정파괴등의 수 많은 사건들이 피리를 들고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의 진상을 놓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놀랍게도 '중이함경'에서 말한 것 처럼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이 그 동기가 되고 있다.

불교윤리에서는 인간의 행위인 몸과 입과 마음의 세가지 행위(三業) 가운데 가장 비중을 무겁게 두는 것은 역시 마음의 행위인 의업(意業)이다. 이것은 선(善)·불선(不善)의 근본을 오로지 마음에서 취한 것이며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를 중시한 선악관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결과보다는 그 동기에 중점을 두는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윤리교육은 그 선악의 구분부터 불교와는 판이하다. 일반관리의 선악관은 극히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타산적인데 반하여 불교에서의 선(善)이란 인간의 번뇌(煩·진·치)와 타협을 배제한 깨끗한 청정심을 요구한다. 이러한 마음의 바탕에서 우주의 질서, 즉 진리인 법과의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선(善)을 본질로 삼는 것이다. 불교윤리의 고금을 일관한 본질적인 근거는 연기의 법칙이다. 청정한 마음으로 얻어지는 올바른 견해는 탐욕과 증오와 사탄 견해를 물리친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의 내용과 직결된다. 도덕을 부정하고 인륜(人倫)을 배반하고 패악에 탐닉된 사회는 인과(因果)를 불신하고 바른 진리(眞諦)를 불신하는 사탄 견해가 만연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악의 행위는 물론 윤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마음이라고 믿고 있다. 때문에 오늘 이 어두운 사회의 윤리 도덕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상요의존의 관계라는 연기의 인과를 믿도록 하는 것이다. 중국의 백장선사는 "인과는 업연히 존재한다(不昧因果). 그러나 우리는 그 조건을 바꿀 수 있다(不落因果)"라고 하였다.

崔法慧

崔法慧

崔法慧

崔法慧

崔法慧

崔法慧

崔法慧

崔法慧

崔法慧

崔法慧

제32회 학술상 및 제9회 동대문학상 공모

동국의 학풍 이제 우리가 이어감시다

제32회 학술상 작품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일관수확을 거머쥔 본사 학술상이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도 학문연구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동국의 학풍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본상 및 가작 (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 본상 및 가작 (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자연과학상: 본상 및 가작 (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응모요령

3개분야 모두 2백자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작과 함께 발표

◇제출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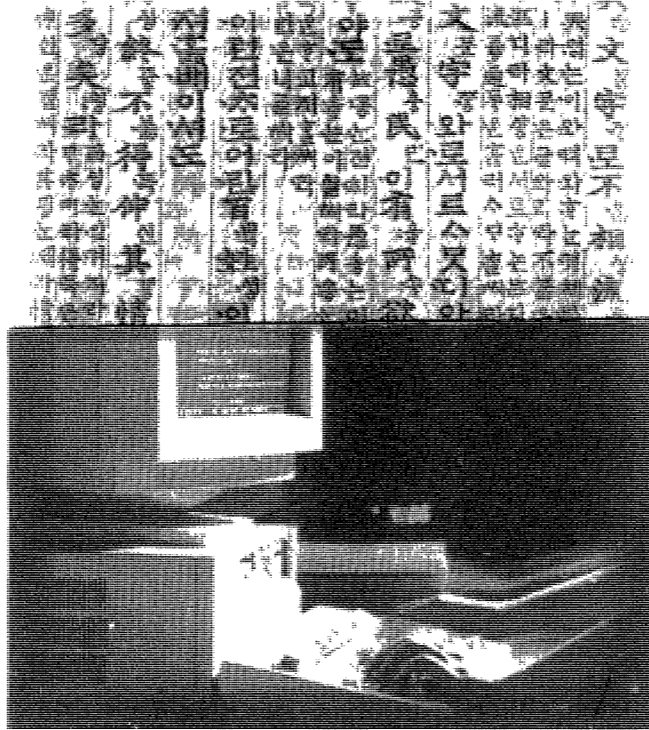
1994년 11월10일~30일까지

◇입상작 발표

1995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전화 (02)260-3491-2



제9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본사에서는 동국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이끌어 나갈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제9회 동대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시 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평론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4년 11월10일~30일까지

◇시상

시 부문: 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며 임상작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1995년 1월1일자 본지 지상

※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동대신문사

중헌 개정 의의와 평가

불교, 민족사 책으로 회복... 종단개혁

가을이란 계절은 산색에서 오는가 보다. 요즘은 산사의 경관은 금방 시가 됐던 수필이 됐던 심경을 노래하는 글을 써보고 싶은 충동을 연출하는 화장세계와 같이 아름답다.

가을산빛이 변화하는 것만큼 우리 조계종단의 역사도 바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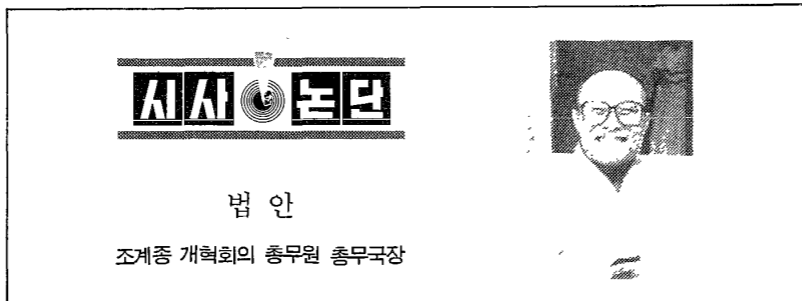
지난 3월 수많은 산중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종단개혁의 원력을 갖고 서원장 삼선반대, 상무대 부정비리에 대해서 온몸으로 외쳤으며 그것은 오로지 종단을 바로 세우겠다는 순수한 열정의 응어리였다.

울곧게 나이가고자 하는 대중을 향해 국민대중의 편에 서야 할 국가공권력이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격나란한 추태를 낳았던 지난 3.29와 4.10 불교법난이다. 종단개혁의 첫단추는 공권력과 싸움이었으며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종단을 팔아먹는 매종행위자들의 비승가적 거짓과 싸움으로 출발했다.

우리는 너무 큰 상처를 안았으며 그 때와 피의 원력으로 출발한 개혁의 출발이었으며 범종주는 종단개혁의 주체로서 개혁의 열을 낳았고 그러한 형식은 종단을 민족사의 고드머리에서 허우적거리는 교단을 개혁을 통해 다시 민족사의 중심무대로 복귀시키는 초석을 다지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탄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큰 고통을 통한 개혁의 임태는 종립학교인 우리 풍국대 가족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 개혁의 기간은 6개월, 그러니까 1주일 뒤인 10월18일이면 꼭 차는 일이다. 물론 기간이 짧은 관계로 개혁일정을 2개월 연장은 했지만 이제 남은일정은 새로운 개혁종단을 낳기 위한 종회의원(81명)을 선출하여 종회를 구성하고 동시에 각교구총회의 선거인단 10인(24교구=2백40명)을 통해 총무원장 선출만을 남겨두고 있다.

종단개혁의 성과와 그 한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면서 향후 개혁세력들의 일선에 대한 과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예전에 늘상 불자들과 국민대중의 민족을 받았던 나라를 위한 조찬기도회는 이제 불교계에서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또한 총무원과 조계사에 가만 불교인도 아니면



시시논단

법안

조계종 개혁회의 총무원 총무국장

서 무전기를 들고 서성거리며 청사를 들락거리는 기관원을 찾아 볼 수 없다. 다시는 종단대표자 내지는 종단의 간부들을 각종 선거의 유세장에서 볼 수 없을 것이다. 불교의 자주성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다.

1954년 불교정화 이후로 고집적인 종단의 악폐의 대명사인 폭력과 폭력성의 모습 또한 구경이 쉽지 않을 것이다. 불교광신의 큰 덩어리들이 사라지고 수렁집단으로서 그 고유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는 데서 다행이다.

종단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였던 종헌, 종법의 개정은 다시는 종단이 소수 몇몇사람의 독재 내지는 독점을 할 수 없게 바뀌었으며 민족사의 미래를 밝히는 종단의 교육과 포교, 사회복지, 문화의 지평을 크게 확장시켰다.

통과와 공포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 이번 개정된 종헌의 개혁내용을 살펴보면 총무원 구조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문화부와 사업부를 신설하였으며 사회의 그늘지고 소외된 대중을 향한 사회복지원의 개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총무원과 더불어 교육원과 포교원의 별원 개설은 종단의 향후 진로를 밝게 해줄 것이다.

소수의 권승들이 독점하였던 중요직책은 일체 걸칠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들테면 총무원장을 비롯해 총무원 각 부장, 국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본사주지, 특별분담금사할 주지는 다른 직책을 겸직할 수 없다. 다수 중도들이 소외됐던 종단 대표자 선출에 있어서도 중도들이 직접 중

회의원을 선출하도록 바뀌었으며 총무원장의 인사권 남용으로 종단 파행의 악폐를 재연하였던 본사주지 임명은 산중대중들의 총의에 의해서 추천하면 총무원장은 종헌, 종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임명해야 한다.

지지제 시대를 맞이하여 각교구(24개) 본사는 교구총회를 구성해 교구의 중책을 내고 주지를 감시 감독하며 조계종 전사찰은 의무적으로 사찰재정을 신도들에게 공개하도록 종헌에 명시하였다.

또한 사찰의 재정을 수시로 감사하여 돈 문제 가지고 불신받는 종조를 없애는 감사국을 총무원 산하에 신설하였다.

간략히 정리하였지만 이외에도 전향적 내용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으며 이정도라면 종단개혁에 있어서 법과 제도로서의 개혁은 엄청난 진전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개정된 종헌은 아직도 그 독소조항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보수, 수구, 기득권 승려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하었으나 많은 부분을 진척시키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법과 제도보다는 사람이 문제이며 수행자들의 본연의 양심이 중요하다는 지적은 앞으로 개정된 종헌을 얼마만큼 실천하느냐가 더욱 큰 관건이다.

이번 종헌개정의 역사적 의의는 첫째, 수행을 하는 종교집단으로서 교육, 포교, 사회복지가 전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그 의의를 들 수 있으며 둘째, 소수의 승려나 집단이 종권을 독점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권한을 분산시켰다는 데 그 특징이 있으며 셋째, 종양의 권

한을 지방의 교구단위로 대폭 이양시킨 점 넷째, 종책을 연구하고 중무를 감시 감독하는 의회기능을 강화시키고 또한 중도들로 하여금 참정권을 행사하게 한 점은 대중의 견해를 수렴하여 종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되는 내용이다.

종헌개정의 교단으로서의 의미는 위로는 중생에 하향 원로어른스님들과 중진, 대덕, 소장에 이르기까지 만장일치로 이루어져 승가의 화합과 관용이 어우러졌다는 데서 그 깊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개혁의 성과는 바로 종단의 위상을 민족사의 반석위에 튼튼하게 바꾸고 선도를 하는 계기가 되어야하며 안으로는 붓다의 가르침을 법과 제도라는 좋은 그릇을 통해 수행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터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보다도 사람이 문제이듯이 향후에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새로운 개혁종단을 열만큼 건강하게 세우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지혜의 안목이 없는 지도자나 집단이 들어서게 된다면 '죽어서서 뭐를 주는 격이 되지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종립학교인 풍국대의 발전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때 학교의 구성원들도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이제 개혁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던 주체들은 다가오는 종단의 대표자 선출에 있어서 엄정하고 투명한 공정선거가 되도록 그 힘을 모아야 하며 개혁지향의 사람들이 소신과 역량을 갖고 종단의 종책에 대한 비전 제시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부처님 말씀에 "일을 대해서서 처음과 중간과 끝이 없이 어릴하게 하라" 했듯이 종단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처음의 마음과 같이 그 순수한 열정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때까지 담담하고 매를 차게 가야 할 것이다.

올바른 교육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정진해야 할 종단의 자주화, 교단의 민주적 운영은 우리들의 영원한 원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사설

올바른 선거풍토 확립

찬바람이 옷깃을 추스리게 하는 요즘 학내에는 각급단위 학생자치기구의 선거를 준비하기위한 바쁜 발걸음으로 부산하다. 매년 이맘때면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학내에는 각급 학생회선거로 한바탕 흥역을 치루곤 한다.

대학의 학생회 선거가 가지는 의미는 여러가지로 해석될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주주의 실천의 장이라는 의미를 가질수도 있을 것이고, 둘째 다음해 각급 학생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대표자를 세워내는 장이기도 하다. 셋째로 올해 학생회 사업을 평가해 볼 수 있는 평가의 장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으며 넷째로 가장 중요한 의미인 차기 학생회의 나이갈 바를 제시하는 정책생선의 장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우리학교의 선거풍토를 보자. 기성 정치관 뺨치는 과열분위기에 후보자의 정치성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대립과 반목 등은 선거가 끝난후까지 그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차기 학생회의 길잡이를 제시하진 커녕 길잡이를 막아내고 있다. 그 좋은 예로 올해 서울캠퍼스의 총학생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선거전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던 학생복지위원회의 문제로 학생회는 극도의 혼란으로 빠져 들었고 이를 배경으로 세워진 제20대 총학생회는 초반부터 순탄한 운영을 보일수 없었다. 학생회 선거전 부터 쌓여왔던 학생회 정파간의 갈등은 선거로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이후 학생회 운영에 커다란 장애물로 남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학생회의 약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회가 학생들로 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현실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도 문제이다. 실제로 이러한 학생들의 발 학생회 현상을 학생회 선거의 문제만으로 돌릴수는 없겠지만 선거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올바른 선거풍토의 확립은 학생들의 관심밖으로 밀려나는 학생회를 올바르게 세울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의 학생회 선거란 각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는 입장에서 자기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풍부한 정책의 내용으로 학생들과 교감하면서 올바른 학생회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 장일 것이고 이를 바라보는 학생들에게는 풍부한 정책속에서 학생회로의 조직화와 자기의식화의 계기일 것이다. 이러한 양자의 만남속에서 대학의 학생회 선거는 집단적인 학생회의 조직화, 의식화 사업인 것이다. 즉 학생자치기구의 선거는 학생회 강화의 시발점이란 말이다.

여기서 학생회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아니 학생회 선거를 치뤄내야 하는 2만 명의 학생들은 지난 일년간의 학생회 모습을 반성해보아야 한다. 누가 학생회를 힘겹게 만들었는지, 왜 학생들이 학생회에 등을 돌리는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 건설의 시기가 돌아온다. 이 건설의 시기에 올바른 건설의 대안적 정책을 가지고 건강한 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풍국대 평

박원진



◆학내 복지 실태 점검

음식질·위생 불만족 50%이상

학내복지시설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가 변화를 요구하는 의지로 모아지고 있다.

이과대, 문과대, 예술대, 불교대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작게는 '백상의 집' 적성화로부터 크게는 학내 생활협동조합의 위상정립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백상의 집' 모습은 이렇다. 학생들의 불만사항을 시행하라는 요구가 운영에 반영될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운영상의 이익을 시설, 서비스, 음식의 질-양에 재투자하되, 그 명확한 근거와 용도를 공개하는 것.

이런 요구사항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복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라는 것이 있는 이상, 재구성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개발과 공간-시설을 확보할수 있는 계획의 수립이 전제되어야 할

이 여러 주체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관위에서 실시한 제1차 구내매장 정기점검조사 결과중 '백상의 집'에 관계된 내용을 살펴보면 "조리기구-식기 세척상태가 불량하고 조리공간의 부족으로 조리하기가 힘들어 주방확장공사를 요한다"고 되어있다.

또 공관위 주관 여론조사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식사음식의 질은 불만족이 54%, 음식의 위생상태 불만족이 50%로 집계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는 항상 제기되어 왔고 그때마다 한시적 점검, 제한적 개선으로 불만을 잠재워 왔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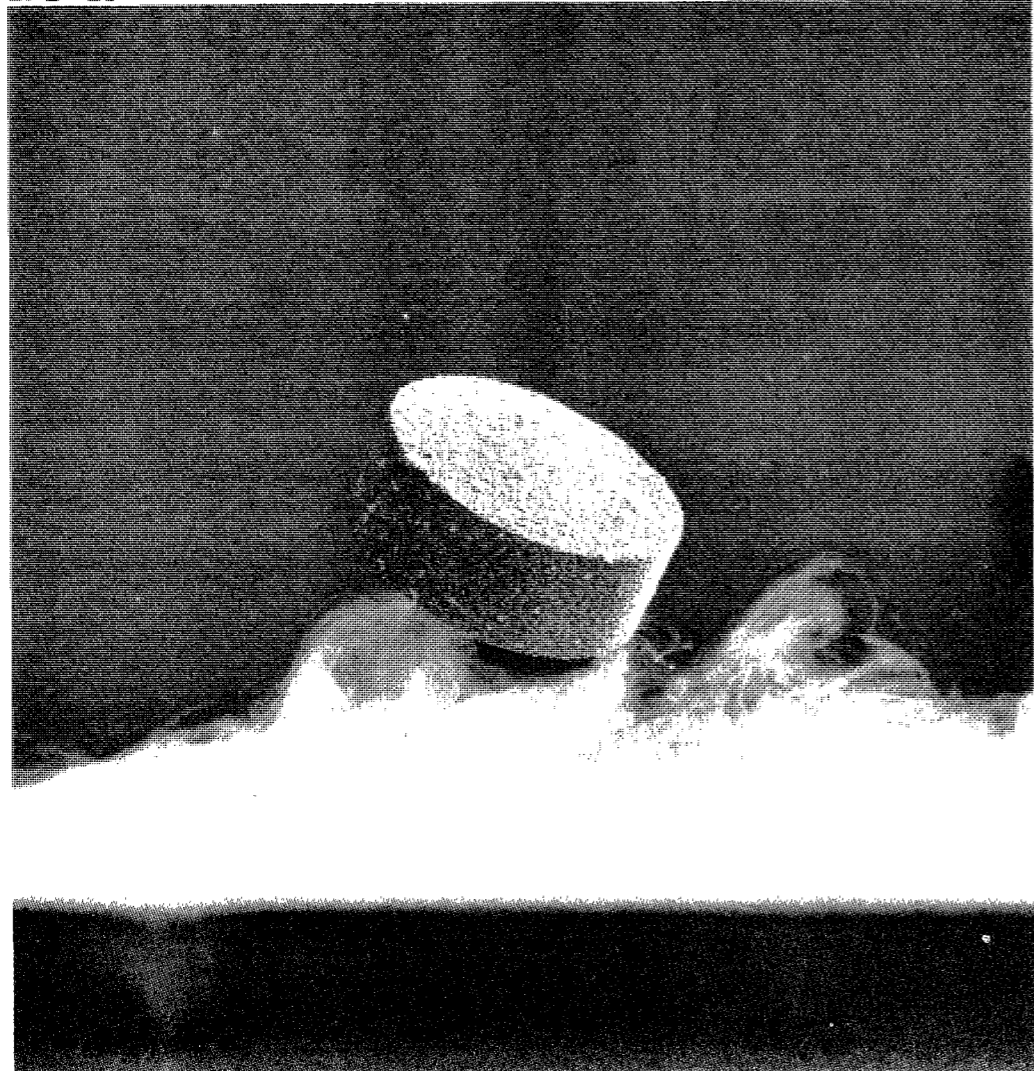
외부인 임대매장인, 공관위 직영매장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윤추구 영리단체임은 사실이다. 또한 이런 영리단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게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학내에 있다는 이유, 화외매장을 이용할 시간,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매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평을 감수해야만 하는 사실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보인다.

복지사업을 책임져야 하는 공관위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복지매장의 전반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

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학내 복지매장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생이며 틀을 만드는 과정이나 이후에도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설문조사 결과 학생참여를 바란다는 의견이 58%를 넘었다는 사실이다. '백상의 집'을 하루 2회이상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일부종목 10%할인'이라는 표지판과 거스름돈을 보며 이해할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이유리 기자)

■초전도 현상



"공중에 떠서 생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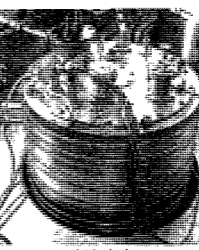
우주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괴기영화는 더욱 아닙니다. 초전도체의 힘으로 공중에 떠 있는 자석위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초전도 기술은 21세기 첨단 정보화시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 미래 전력 유통기술의 중요한 연구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초전도 미래도시는 어떻게 다가올까? 리니어 모터카가 도심을 달리고, 해안에는 초전도 선박이 물결을 일으키며, 사무실에서는 조셉슨 소자에 의한 초고속 컴퓨터를 사용하고, 병원에서는 초전도 자석에 의한 MRI 촬영기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한국전력은 1961년 기술연구원을 설립하여 무공해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은 물론, 초전도 발전기와 케이블, 변압기등 미래의 전력유통 시스템인 초전도 기술개발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05년 실용화를 목표로 획기적인 초전도 에너지저장장치 SMES(Superconducting Magnetic Energy Storage)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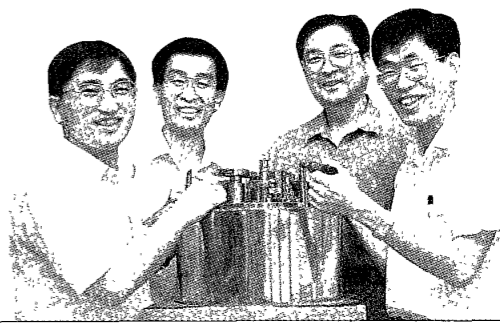
새로운 에너지, 완벽한 에너지는 없을까? 저희 초전도 연구팀은 21세기 뉴 에너지 창조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보다 깨끗하고 품질좋은 에너지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맑은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전력공사



SMES 시험장면

초전도 연구팀
책임연구원 장종근
산업연구원 남궁도
연구원 이준희
연구원 최인혁



21세기 에너지 - 한국전력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NEW ENERGY

민주노총 건설투쟁, 노·운의 새시대 개척

추진위구성등 구체적 논의활기 국민적 합의 위한 모색 필요

지난 9월30일 전노대는 제18차 대표자 회의에서 민주노총 추진위(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11월13일 전국노동자대회 때 민주노총 준비위를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본격적인 민주노총 건설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그동안 민주노조진영을 비롯한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민주노총 건설문제는 구체적인 담판사안으로 떠올랐다.

1. 민주노총 추진위 구성으로 구체화된 최근 흐름에 대해

노조운동의 조직발전전략에 대한 논의는 약 3년 전, 전노협이 산하에 조직발전전략 소위를 구성하여 활동하면서부터였다. 그런데 전노협의 논의는 조직 건설 원칙, 시기, 경로등등 각 사안에 대해 이견이 노정되어 논란을 거듭하다가 지난 8월25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림으로써 급진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당시 전노협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을 보면, 건설 시기는 올 하반기에 준비위를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중으로 민주노총을 건설하는 것으로 하고, 쟁점이 된 금속산업단위를 업종별 단위로 할 것인지 산별단위로 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업종별 단위로 조직화되 동시에 금속산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물론 각 단위조직들의 결의수준에는 편차가 있다. 많은 경우가 한창 조합원까지 달하는 대중적인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못하고 있고 현충원은 민주노총의 필요성과 추진에는 동의하면서도 아직 조직적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10월말 대의원대회에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좀더 대중적인 논의와 결의를 조직하고 투쟁적인 민주노총 건설을 위해서는 건설 시기를 늦춰야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제기된 바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민주노총 건설투쟁은 합치게 시작되었다.

민주노총 관련 현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추진위 구성을 보면 추진위는 전노대 대표자회의 산하에 위치하여 전노협, 업종회의, 현충원, 대노협을 기본단위로 하고 추가로 가입을 결의한 조직에서 추진위원을 내어 구성하였다. 현재는 전노대 산하 4조직과 기아그룹이 가입 결의의 조직으로 확정된 상태이다. 전지협은 지난 11월13일 추진위 구성을 위하여 1천7백만 원의 재정을 분담금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까지의 민주노총 건설 현황은 위에

공등을 주력하여 부품, 판매부문까지를 포괄하는 자동차업종연맹은 11월 초 연맹 준비위 건설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임투중인 한국통신은 공공부문의 주요 사업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 아직 가입 결정을 한 상태는 아니다.

추진위의 목표는 민주노총 준비위를 발족하는 것으로서 준비위 발족 시기는 11월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목표로 하여 추진되 최종 결정은 노동자대회 전에 열리는 전노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추진위의 사업은 민주노총 건설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조직사업, 교육선전사업, 재정증 재단사업을 관장하게 된다.

추진위는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산하에 집행위를 두어 사업을 진행한다. 집행위는 각 조직들에서 파견한 21명의 상근 집행위원들로 구성되어 10월10일부터 상근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주 3회의 정기 회의를 운영하면서 임상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추진위 사업을 위해 1천7백만 원의 재정을 분담금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까지의 민주노총 건설 현황은 위에

서 살펴본것처럼 추진주체인 추진위를 구성하고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초기 단계에 와 있다.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추진위단계의 기본사업은 워낙 워낙해도 11월13일로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를 중심으로 한 노동법 개정 투쟁이 될 것이다. 현재 대회 준비는 기존 전노대 집행위가 맡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이 민주노총으로 합류할 세력들을 조직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2. 민주노총 건설의 전망과 과제

전 민주노조진영이 힘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총건설투쟁은 노조운동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투쟁이다. 이제 첫 출발을 시작한 민주노총은 산적한 과제를 짊어지고 해결해야하는 처지에 있다.

이후 전망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민주노총 건설투쟁이 새시대를 개척하는 투쟁이라는 것은 87년 노동자 대파업투쟁 이후 숙성 전투적 노조운동으로 통칭되어 온 민주노조운동이 지향해 온 노동자해방의 과제를 한 단계 발전시켜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이념적으로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사회변혁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 투쟁의 측면에서는 이제까지

교육개방 토론회 참가기

'수용 아닌 적극적 개방돼야'

'교육시장'이란 단어는 교육마저 상품으로 전락해 버린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듯한 묘한 어감을 준다. GATT체제의 붕괴와 유알(Ur)협상 타결로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쉴새없이 국제화, 경쟁력 담론이라는 미친 개가 신성한 교육의 장에까지 고개를 내민것이다. 정부의 교육시장 잠정개방일정에 따르면 95년 전문강습소를 시작으로 96년에는 인시, 외국어, 컴퓨터학원등이 그리고 97년에는 대학과 대학원이 부분 개방된다. 단순히 쓴 계약으로만 따져도 연 50조원의 시장(이)가 개방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경희대학교에서는 '대학원의 포럼-부리내림'에서 주최하는 교육개방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현정(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 연구소)소장, 박거용(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상명)대, 영어교육)교수, 그리고 서울대 총학생회교육개혁국 정책국장등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교육개방 시대의 대학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의 파급 효과

교육 개혁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한국 교육개발원에서는 △국내 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 △신기술, 첨단기술 국내 유입 등 정보교류의 원활화 공헌 △교육기회

다양화에 기여 △국내 교육기관의 해외 진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 교육의 존재라는 위기감 앞에서 이는 그다지 현실성 있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교육개방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자들이 입을 모아 우려하는 점은 바로 교육개방이 △교육을 통한 외국문화의 무분별한 침투 △국내교육기관의 자생력 약화 △교육경비의 과다 해의 유출 △계층간 교육위화감 조성과 교육 계층화 현상 초래 △민족적 정체성과 주체성의 혼돈 내지 상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교육개방으로 학원과 학습지 및 교육기자재 시장 다음으로 외국의 교육기관과 자본이 잠식할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은 대학이다. 우리나라 대학이 교육시설, 교수인력, 교육재정 등 모든 면에서 국제적으로 뿐만아니라 국내적으로도 교육부가 설정한 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외국고등교육기관과 외국 학위에 대한 높은 선호도 때문에 외국의 유수 대학과 자본은 정규대학을 신설하거나 공동투자 형식을 통한 분교설치 또는 국내대학과 학원공동 인정, 교수진 교류, 어학연수 등 연합체제 운영의 방식 등을 통해 국내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이다. 특히 가장 적은 투자로



◇교육개방으로 '문화 식민지화'로 전락할 것이냐, 이를 계기로 교육내부의 구조적 부조리를 타파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외국어 분야와 인문, 사회 계열 그리고 예·체능계열 등으로 외국 교육기관의 진출이 예상되며, 이 공계의 경우는 외국의 최실험실 장비 등을 이용하기 위한 부분적 유화형태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그 대책과 방안

박거용 교수는 우선적으로 교육정상화와 이를위한 학원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선결과제로 꼽았다. 사회는 학력만 임금격차, 외국교육 및 외국 문물에 대한 무분별한 선호등 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학원 또한 학내 제 주체들간의 협의체제 개선, 예·결산 공개등의 내부 민주화를 통해 자율성을 확보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대학간 협력체제를 확고히 해야한다" 밝히고 "정부의 '국제화, 개방화, 국제 경쟁력 제고' 이데올로기 선전 속에서 국내 대학간 경쟁유도와 국내 학원간 통합, 대화와 유도를 통한 국내 학원간 과다경쟁방직을 내걸고 있으나 이는 경쟁유도, 방직이라는 표면적으로 모순된 대책일뿐 아니라 결국 소수 대규모 재벌 대학과 학원의 구체적 일 뿐이다"며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현정 소장은 교육개방으로 교육 종속화, 주체성 재확인의 갈림길에 놓였음을 인식하고 개방수용이 아닌 적극적개방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으로 △교육의 식 개혁 △교수의 전공 이기주의 등 내재된 문제의 해결 △스카리클럽의 다양화 △개방에 대처한 새로운 부처 설립등을 냈다. (양수정 기자)

의 주요 투쟁영역인 생존권투쟁을 포괄하여 제도개선과 사회정치적 과제까지를 주도적으로 담보해 나가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자계급이 중심이된 정치세력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들이다. 현재까지 볼 때, 민주노총건설 논의는 이러한 노동자의 제 과제들을 깊숙히 감안하면서 논의되어오지 못했고 충분히 고려되면서 함께 발전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두번째로 민주노총 건설은 그 자체가 투쟁이자 투쟁을 통한 건설이 되어야 한다.

세번째로 민주노총 건설은 주체인 조합원 대중들의 광범한 참여와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전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속에서 건설되어야 한다. 이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전국 각 사업장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1천만 노동자들의 가슴속에 새시대의 새로운 노동해방의 열망으로, 새로운 희망의 구실로 민주노총이 자리잡아 힘있는 투쟁이 되도록 민주노총 추진위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시기의 민주노총 건설운동은 노동자들간의 관심사가 아니라 새시대의 희망, 새로운 창조적 힘찬 발걸음에 국민대중들의 힘찬 지지와 박수리를 함께하며 진정 이시대와 민주의 선두에 선 행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 미 숙

(전노협·쟁의국)

시사 조점

안기부 교수 연행

국가안전기획부는 지난 6일 성균관대 정현백(사화과), 송실대 김홍진(독문화), 서강대 유여덕(사회화)교수를 독일 유학 중 북측인사와 접촉해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긴급 연행,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안기부는 32시간 만에 '정교수 등이 재독 간첩으로 알려진 김모씨와 서신왕래, 국제통화등을 통해 친분을 유지한 것은 사실이나 더이상의 연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귀가 조치 시켰다.

이번 정교수 및 2인의 교수에 대한 안기부 수사는 박승 서강대 총장의 '국내교수 중 일부 유학교수들이 북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공부했다는 발언을 근거로 벌인 내사로 밝혀졌다.

그러나 안기부는 뚜렷한 혐의점도 못찾은채 연행 교수들을 석방하는 등 자체 내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연행조사과정에서 수사권의 남발과 신공안 정국의 연장·확대를 위한 무리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한편 안기부는 이들 교수의 10여명의 교수들을 내사중이며 조만간 이들도 연행 조사를 받길만정도로 알려졌다. (사회부)

동약로 한 관리인의 하루

지난9일 오전10시 경 야간강좌 교학과 점거농성장에서는 때 아닌 생일잔치가 벌어졌다. 동국관 관리인 임덕규씨의 생일을 맞아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박유찬·영문3)에서 마련한 것. 20여명되는 학생들의 축하절을 받은 임씨는 그간의 노고에 어느새 잊혀진 듯 했다.

반면 지난달 학림관 관리인 안천산 씨가 과로로 쓰러져 사망한 소식은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을 준다. 새벽녘에 수위실에 쓰러진 안씨를 발견한 김점수(지교4)군이 제일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이에대해 한 관리인은 "1인 교대로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새벽3시까지 2시간마다 순찰하는데 쓰러지는 것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원래 직업이 그렇다고 체념하는 관리인도 있으나 그동안 쌓여온 불편함을 토로하는 이가 적지않다. 일요일이나 공휴일 특근수당도 없고 여름휴가도 얼마전 끝났다고 한다. 1인 교대라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식사도 해 먹어야 할 때가 많다. 또한 "대화할 사람도 없이 혼자 장시간 앉아 있는것 또한

중노동이다"고 말한다.

얼마전 본관앞에서 술마시던 학생들이 피운 불로 잔디에 불이 붙었던 일이 있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불을 피우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한 점검 역시 관리인들의 몫이다.

무엇보다 관리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단난사고이다. 영철연휴때도 불안해서 차리리 나오는 게 낫다고 말하는 동국관의 한 관리인은 동국관(M동) 2층 컴퓨터실과 통하는 출입문에 셔터를 설치해 줄 것을 학교측에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한다. 또한 학생회실 창문의 잠금장지도 고장나서 불안하다.

예전과 별 달라진 것 없는 관리인들의 근무조건에 대해 직원노조의 총무과는 "인원충원등 개선방안을 공동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농성장에 울리던 축하곡 '청춘'을 듣는 임관리인은 취기에 육하던 학생들에 대한 서운함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불편함도 잠시 잊은 듯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김소영 기자)

POSCO메세지 면학편

“피라미드의 교훈”

강렬한 태양광선아래 창연히 빛나는 피라미드—
무수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황금빛을 간직하며
하늘을 향해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단단한
기초 때문입니다.

미래의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대학생들—
면학의 계절을 맞아 미완의 토양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할 때입니다.

포항제철

동대신문

부총장 인터뷰

일시: 1994년 10월 7일 오후 3시
장소: 부총장실
사회: 이만 (불교학·본사부주간실) 교수

불교정신에 입각해 진리를 규명하고 전수하는 학교로서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79년 개교한 경주캠퍼스가 올해로 개교 16주년, 캠퍼스 승격 1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1만4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1만에 가까운 재학생이 진리탐구의 장을 수련, 미래로 응미하는 종합대학의 토대를 쌓고있는 경주캠퍼스의 김갑주(역사학) 부총장을 만나 11세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의 위상과 '현재'를 들어 보았다.

- 개교 16주년 캠퍼스 승격 10주년을 맞는 부총장님의 감회와 지난 16년간 경주캠퍼스 이력은 발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우선 건학이념에 부응해 불교의 성지이기도한 경주에 자리잡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의 개교 16주년을 기념해 생각합니다. 사실 경주캠퍼스의 지난 16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처음 경주고등학교 강당에서 시작해 현재까지의 발전을 이룬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나온 학생들과 함께 감회가 새로울수 밖에 없습니다.

- 개교 당시 10개학과 4백명을 모집, 경주대학으로 시작한 불교가 현재 7개 단과 36개 학과, 총 재학생 9천 3백여명으로 자랐습니다. 또, 95년엔 3개학과 1백30명 신입생과 20명등 총 1천9백5명의 신입생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주캠퍼스는 우수교원의 지속적 확보와 교육·연구기능의 심화, 단대중심 및 지방시대 산학협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건학이념구현 및 지역문화창달을 이뤄냈다고 자부합니다.

- 현재 경주캠퍼스의 제반문제와 개선 및 발전의 전망에 대해 소견을 밝혀 주십시오
= 경주캠퍼스의 문제탈파, 단편과제와 개선의 방향을 잡아보려면 첫째, 학교안정을 위한 기강확립이 중요합니다. 교수는 학생지도와 연구에, 직원은 학생 및 교수연구 뒷받침에, 학생은 학문탐구에 전

도약을 위한 일대전기마련 위해 학내구성원들의 단결된 힘 필요



력을 기울여 맡은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확인을 위한 학사관리의 철저입니다. 형식이나 말이나 단 확인행정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셋째, 대학의 양적향상에 맞는 내용있는 교육여건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캠퍼스의 일반적 교육행정사무를 대폭적으로 경주캠퍼스로 이양해야 하는 점이 큰 과제입니다. 도서관과 교수연구실의 불빛이 반듯하게 켜지지 않는 지금의 경주캠퍼스는 경주캠퍼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과제를 풀수있는 지적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시행하기 위해선 역시 학내 구성원들의 책임감과 단결된 힘이 필요한 두말할 나위없는 부분이었지요.

- 앞으로 경주캠퍼스 추진해 나갈 사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우선 3천여평 규모의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관이 들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만 이는 97년 대학중점평가에도 대비하겠다는 측면입니다. 또 불동과 유치원이 개원하고 현재 지역대학 개발대학원 하나인 특수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의 신설을 추진중입니다. 폐농을 수 없는 것은 교원후생을 위한 속사신축도 계획중입니다.

주목할만한 것은 정계동문의 후원을 받아, 금장도로가 신축 확정됩니다. 차재에 학교 앞 다리신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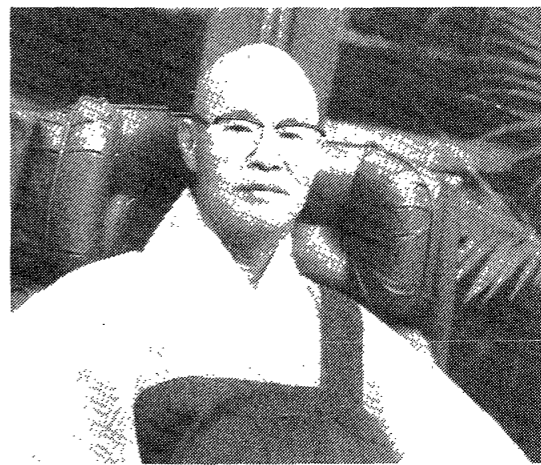
- 95년도 신설학과에 대한 육성방안은 무엇입니까?
= 우리대학만의 특화된 학문육성을 위해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국제관계,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국악과, 사회체육학과가 내년에 신설됩니다. 신설학과에 대한 육성방안은 기존의 토대위에서 가능한 집중적인 육성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오는 11월 총장선거에 대한 부총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요?
= 상당히 민감한 사안일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지만 빛의 직선 선거를 지켜보며 장점과 단점을 함께 보았고 파벌정성등의 부정적 요소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요소를 극복한다면 보완된 형태의 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끝으로 경주캠퍼스 구성원들에게 전달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 교수 직원 학생이 각자가 할 일을 철저히 해서 책임을 완수한 뒤 역할을 모아 학교발전을 위해 매진해 주길 바랍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취임사를 빌리자면 이제 학교가 학내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해줄것인가를 바라기 전에 학교발전을 위해 학내구성원들은 무엇을 할것인가 고민하고 감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재환기자)

이사장 축하 경주캠퍼스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동국학원 이사장 오 녹 원

우리 학교는 일찍이 전세계의 세계평화와 내부의 화합과 외국의 이 민족의 뛰어난 정기를 길이 보존하고 찬란한 옛 민족문화를 유지·전승시키기 위하여 당시 불교계의 선각자들이 삼보의 정재를 쾌히 투척하여 설립한 대학으로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의거한 인간의 자아실천과 원성 및 불국토의 이상세계를 이 땅 위에 실현코자 하여 세운 순수 민족대학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은 그 어느 기관이나 사회단체 보다도 확고하고 수성한 설립취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원력의 발현은 그 당시의 사회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공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뚜렷하게 살아가려는 많은 개인이나 위정자들에게 응으로 양으로 미친 자립을 향한 의지력을 이루 말할 수 없을만큼 지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상과 실천을 위하여 우리 학원이 70여년을 고군분투하던 중에 마침내는 우리나라 천년의 역사를 가진 고도 경주에 두번째의 용지를 펼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니, 이는 그 동안의 끈질긴 자구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새로운 힘찬 도약의 거포였던 것입니다. 경주는 그 위치와 역사성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불교계가 오랫동안 간직해야 할 성스러운 곳으로써 당위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주에 재도약의 기치를 내걸고 캠퍼스를 설립한지 16주년이 되는 금년에 이를 회고하여 보면, 현재의 시설중에서 강의동을 더 증·개축하고 교수님들의 연구실과 본부건물, 그리고 얼마간의 교수사설들을 확충하여 나아가면, 실로 그 환경과 규모 및 학생들의 자질 등에 있어서 영남권에서는 이제 부동의 걸출한 위치에 서있다고 여겨지므로, 앞으로는 무궁한 발전이 우리 앞에 놓일 것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이러한 눈부신 학교발전이 있게 된 것은 비단 우리 재단만의 노력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여러 교직원들과 학생 재원들의 애교심이 무엇보다도 큰 정신적인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경주 캠퍼스가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학교의 근본설립의 지를 심본 이해하셔서 인내해 주신다면 본인이 거기에 부응되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부처님의 기호와 지해가 항상 여러분과 같이 하길 삼보전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집/면/안/내

6면 설문조사
온방골 생활문화진단

7면 동문에게 듣는다
기획시리즈

8면 사진화보

특집 좌담

과도기적 상황속에서 학생회 새로운 위상정립위한 다각적 변화모색·전문화가 시급한 과제

사회-바쁘신 일정속에서 시간을 내어 이자리에 참석하신 기구장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자리에 모이신 기구장님들 모두 잘하시겠지만 올해로 경주캠퍼스 개교 16주년을 맞았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 종합대학으로서의 첫출발을 의미했던 캠퍼스 승격 10주년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경주캠퍼스는 새로운 도약의 시점을 맞이하였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이자리에서는 현재 경주캠퍼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일선에서 뛰어난 기구장님들과 함께 발전의 전망을 함께 이야기 해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지난해와 올해 공간 확충과 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승렬-실제 자연과학관 신축, 학생회관 증축등이 이뤄지긴 했지만 학생들에게서 '겨울은 세웠는데 더 불편해 졌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는 과중실, 중과가 계속 이뤄지고 꼭 필요했던 시설및 공간이 새공간을 차지하는 바람에 그런것 같습니다. 그나마 진흥관의 경우 난 강의실을 반으로 갈라 수업을 하는데, 공간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먼 이야기 인입니다.

송인호-원칙이 본관화 되어 사용하고 있는것도 문제입니다. 본관건립문제는 공간문제해소에 있어 급선무이기도 합니다.

차승렬-공간문제에 있어 완전한 해결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학교당국이 학생들 및 학생회의 이러한 요구를 보체는 아이들의 투정정도로 볼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책없는 증과증원에 맞춰가지 못하는 부분에서 학교측에 공간확충의 당위요인을 밝히고 학생-학교측간의 선별대화를 통해 풀어갈 문제인것 같습니다.

김성기-교육재정확보지원의 국가적 문제까지 거슬러 가겠지만 재단의 육성노력이 무엇보다도 확실하다고 봅니다.

사회-그러면 여기서 경주캠퍼스의 외적 발전에 따른 자치권확보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올수 있었는데...

이근식-자치권 확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전에 우선 총장선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총장선거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인물이 선출되는가, 또 경주캠퍼스의 입장이 얼마나 개인적인가에 따라 외면적인 자치권 확보의 조건이달까 여건이 좌우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학생·교수·직원 경주캠퍼스 구성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학생들의 인식정도나 교수 직원들의 태도 모두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학생회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교수·직원·학생회가 총장 선출에 있어 경주캠퍼스의 입장을 밝히고 능동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대화와 역할을 모으는 것이 시급합니다.

차승렬-그간의 자치권 확보투쟁을 돌이켜 보면서 도출된 오류라면 구체적인 자치권 확보의 상을 그려내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경주캠퍼스 학자투의 관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김성기-동맹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캠퍼스와 피리된 학자투 사업이 문제점의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경주캠퍼스의 기성회 투쟁과 서울캠퍼스의 재단혁신투쟁이 서로 안맞았던 것은 경주캠퍼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좋을것이 없었지요.

이근식-자치권 확보의 중요 과제를 설정하자면 원칙적으로 사무총장·인사·재정권의 독립을 들수 있습니다.

행정진반에 걸친 예측화가 시급히 풀리지 않는 이상 자치권 확보는 어렵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인사권만 하더라도 서울캠퍼스 바라보고 있는 교수 직원에 있는 한 경주캠퍼스 발전은 생각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윤영-분명한것은 학생및 학내 구성원 대부분이 불필요한 행정예속화 개선과 경주자치권 확보에 대한 요구들을 계속 분출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송인호-경주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는 현시점을 돌아볼때 자치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올때도 된것 같습니다.

16년의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 양적 발전을 뒷받침 할만한 질적 발전과 21세기 대학개방화와 97년 대학중점평가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자치권확보는 중요합니다.

학내 3주체의 협의를 통해 시급히 자치권확보의 방법과 상을 이끌어내야 할것입니다.

사회-자치권확보문제를 제기하면 주동적역할을 해야할곳으로 이자리 모이신 분들 모두 학생회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학생회의 위상은 어떠한지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인호-사실 지금 시기를 학생회, 학생운동의 위기다, 과도기다 라고 정의내릴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올해 학생회를 운영하며 느낀것은 학생회가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위상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차승렬-그렇습니다. 학생회 사업이 예전과 같이 선도투쟁일변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따라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인호-학생회는 권위적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학생들은 학생회에 관심을 잃어가는 정황이 이러한 학생회 사업방식의 답보를 만

사 회:이재환(본사 편집부장)
참가자:이윤영(총여학생회장)
송인호(인문대 부학생회장)
차승렬(법정대 학생회장)
김성기(상경대 부학생회장)
이근식(언론협의회 회장)
일 시:1994년 10월 8일
장 소:본사 부주간실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식-학생회가 과도기적 상황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엔 모두 동의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생회 운영의 새로운 길모색이 필요하네요...

이윤영-학생들로 파고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뻔한 이야기 일지는 몰라도, 학생들의 생활속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관점에서 사업을 풀어나가야 할것입니다.

김성기-저도 학생회 간부이지만 학생회 간부들이 현실적인 자기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보여야 할것 같습니다.

이근식-매년 바뀌어온 학생회가 해를 넘기며 사업이조가 바뀌는것 또한 지양해야 할것입니다. 이월직원이 제대로 되어 사업진행의 원활함을 이룰것입니다.

사회-학생회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짚어보았습니다. 그중에서 학생들의 생활속에서 사업을 풀어나가는 이야기나 나왔는데, 현재 경주캠퍼스 대학문화의 민권과 저질시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윤영-경주 전지역 관공투구가 지정되고 24시간 유흥업소 개방이후 경주캠퍼스 학생들의 생활문화전반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해가 넘어가면 성진동·석장대 나가기가 무섭다는 이야기를 할정도입니다.

차승렬-경주캠퍼스 주변의 향락소비문화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것입니다. 이것이 성진동 유흥업소 24시간 개방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것 같습니다.

송인호-뿐만 아니라 내년 경주 경마장이 신설되면 공인된 도박이 성행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경주캠퍼스 주변에 변변찮은 문화공간및 여가활용공간이 전무하기 때문일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학교주변을 향락 소비문화지역으로 끌여가는 주인공인 학생들의 자정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개선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이근식-학교도 일정 책임을 맡아야 할것입니다. 기숙사 확대, 도서관 서적확대구비, 후생시설의 증대등 학생들을 학교속에서 남는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의 재충전을 위한 재충전소비가 아닌 향락 소비문화에 대한 지적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캠퍼스의 학생으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차승렬-분열이 아닌 통합자로 학내 구성원들이 학교에 대한 애교심으로 학교발전을 위해 단결된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기-학내3주체중 학생들의 나서지 않는 학교발전은 이뤄지지 않을것입니다. 학생 스스로 학교발전을 위한 생각들을 각인했으면 합니다.

송인호-발전의 연계고리속에서 재단은 재단, 학생은 학생, 학교는 학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것입니다.

이근식-학생회의 다각적 변화모색,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영-경주캠퍼스 여학생들이 스스로 주변적 입장에서 탈피해 경주캠퍼스 발전의 주도적 입장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오랜시간 좌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환기자)

기획 설문

경주캠퍼스 학생 인식도 조사 '자치권 확보' '생활문화 개선'에 관심 '총회장 사퇴'엔 양분된 반응

학교발전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는 가운데 경주캠퍼스는 어느덧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97년 대학평가제, 교육시장개방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16년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사에서는 본교생을 대상으로 '경주캠퍼스 설립 16주년 기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 학생, 생활을 크게 나누어 총 4백 29장을 수거 행해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우리의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미래를 위해 신중히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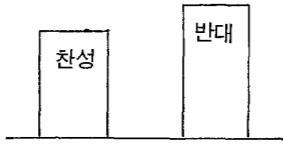
(면접자)

학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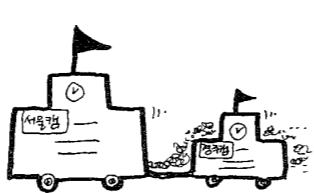
본교 학생들은 현재 경주캠퍼스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공간문제 (29.1%)와 자치권 문제 (28.8%)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문제의 경우 자연과학관 건물이 세워진 이후 계속적으로 제기된 부분으로 '공간이 없다' '강의실이 부족하다' '열람실이 부족하다' 등의 여러가지 참고의견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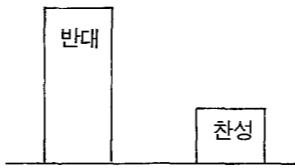
또한 주목할 것은 경주캠퍼스 자치권 문제로 '자치권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자치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54.6%) '어느정도 자치권이 확보되어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 (36.9%)가



총회장 자진사퇴에 대해서



경주캠퍼스 자치권 확보는 어느 정도 수준?



유흥업소 24시간 영업에 대한 생각은?

'자치권이 확보되어 있다' (0.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93년 기성회 투쟁과 총학생회 선거결과과정 등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월 총장선거가 있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총장선거의 올바른 방식에 대해 '교수·직원·학생 3주체'에 의한 총투표가 있어야 한다고 54.6%로 가장 많았으며 '교수'에서의 후보추천 이후 '재단임명'이 36.9%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장선거 방식에 관해서는 교수, 직원들의 입장을 들어보아

아직만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 생 회

'94학년도 각 학생기구 및 자치기구 사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사업에 잘하는 학생기구'라는 뜻하는 학생기구들이 많았다가 55.1%, '전반적으로 못한다'가 27.4%로 '전반적으로 모든 학생기구들이 잘하고 있다' 9.9%보다 무려 8배나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총학생회장의 사퇴와 총장, 부총장 선거를 앞두고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학생기구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또한 '총학생회장 자진사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당연한 결과'가 39.6%,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다'가 49.4%로 나타났다.

'당연한 결과'라고 답변한 응답자 중 26.2%가 대총성이 결여된 사업작품의 결과라고 응답했으며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다'는 답변에 대한 이유에 대해 '전체 학우들의 총투표가 이뤄져야 했다'가 (23.4%) 수위를 기록했다.

1. 학교 (단위%)
 - 1) 현재 경주캠퍼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 (1) 경주캠퍼스 자치권 문제 28.8
 - (2) 공간문제 29.1
 - (3) 교육과정 문제 16.8
 - (4) 학생복지문제 17.3
 - (5) 기타 2.4
 - 2) 총장선거의 올바른 방식은
 - (1) 재단납품 0.5
 - (2) 교수와 후보추천 이후 재단임명 36.9
 - (3) 교수, 직원, 학생 3주체에 의한 총투표 54.6
 - (4) 기타 1.9
 - 3) 경주캠퍼스 자치권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 (1) 자치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0.9
 - (2) 어느정도 자치권이 확보되어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36.9
 - (3) 자치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54.6
 - (4) 관심없다. 6.9
2. 학생회
 - 1) 각 학생기구 및 자치기구 사업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1) 전반적으로 모든 학생기구들이 잘하고 있다. 9.9
 - (2) 사업을 잘 하는 학생기구보다는 못하는 학생기구들이 많다. 55.1
 - (3) 전반적으로 못한다. 27.4
 - (4) 관심없다. 7.3
 - 2) 총학생회장 자진사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1) 당연한 결과. 39.6 (이유) 1. 불교종립대학의 대표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0.6
 2. 대중성이 결여된 사업작품의 결과다. 26.2
 3. 통일교라는데 문제가 있다. 2.8
 - (2)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다. 49.4 (이유) 1. 총학의 시급한 판단이었다. 9.2
 2. 운영위의 상충충실적인 해결이었다. 16.8
 3. 전체학우들의 총투표가 이뤄져야 했다. 23.4
3. 생활
 - 1) 경주 관광특구 지정 이후 유흥업소 24시간 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1) 좋게 생각한다. 22.5
 - (2) 대학문화에 악영향을 끼친다. 75.7
 - 2) 강의시간 이후 여가활동은 주로 어디에서 보내는가.
 - (1) 유흥업소 (12.1)
 - (2) 도서관 (36.6)
 - (3) 집 (30.5)
 - (4) 기타 (18.7)

생 활

지난 9월 11일 경주가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이후 성건동은 저녁 12시 이후에도 경주시내중 가장 번잡한 유흥가로 변모되었다.

성건동 문화의 이러한 세대는 본교생 7월이 타지방에서 왔다는 것을 감안할때 자취생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경주 관광특구 지정이후 24시간 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학문화에 악영향을 끼친다'가 75.7%, '좋게 생각한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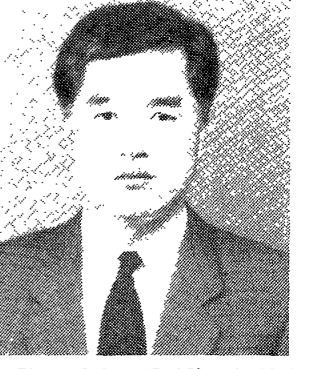
22.5%로 나타났다.

악영향을 끼치거나 들려갈수 밖에 없다는 응답자 대부분의 말을 참고할때 대부분 자취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저녁시간에 여가활동을 보낼만한 대학문화가 없다는 문제로 귀결된다.

또한 '강의시간 이후 여가활동을 주로 어디에서 보내는가'의 질문에 도서관이나 집이 67.5%를 차지해 여가활동을 보낼 대학문화의 양성이 필요한 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영 기자)

온방골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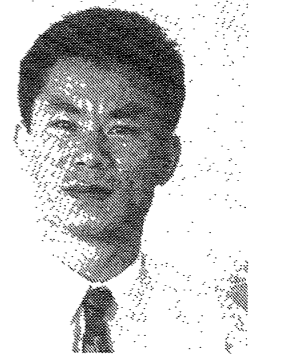
1978년 10월 동국대학교가 천년고도 경주에 불교미술학과를 비롯한 10개학과 4백명을 모집한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기뻐 어찌할 줄 몰라했던 일이 벌써 16년 전의 일이라니 감회가 새롭다. 그해 11월에 경주에서 동국대학교 경주대학이라는 현판식을 가진 이후 오늘의 노년극장 증축에 이르기까지 나의 16년과 경주캠퍼스 16년이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실로 억겁의 인연이 맺어진 것 같다.

이제 다시 16년만 있으면 21세기를 맞이하게 된다. 개방화, 정보화, 국제화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신라인들의

천년고도. 이것은 대학입학을 앞둔 나에게 대단한 흥분거리였다. 곳곳에 신라인들의 체취가 물씬 풍기고 그 후예들의 다정하고 순박한 모습을 보며 대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멋진 일이기 때문이다. 어둠을 가나 동산만한 무덤이 위압하지 않으면서 맞이하니 절로 넉넉해진다. 과연 옛 화랑들의 풍류가 생긴다고나 할까.

이제 불교문화가 꽃피었던 이 옛도시에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생겼더니 좀 낯은감이 있지만 이 얼마나 조화로운 일인가.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여기에 매료되었는가 보다.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의 강력한 만류에도 여기에 입학하여 졸업까지 하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어찌 나 하나만의 생각이겠는



요즘은 드물어졌지만 93년의 진보적인 잡지는 30대에 대한 관심으로 특집을 채우기도 했다. 그 주목받는 30대가 어디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지는 나도 사실 궁금하다.

그들은 70년대의 선배들에게 헌신과 용기를 배워 80년대의 지혜와 이념을 더한 세대가기 때문이다. 들

거름주는

요즘 젊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내가~할때는 식으로 오늘의 현실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과 비교하며 나무라는 것이다.

장교부장 탈영 사건으로 군대에 나가 장교에서 가장 잘 팔리는 소주 안주가 틈때쯤 선배들의 학창시절을 회고해 달라는 원고청탁을 받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X세대 군인들에게 6.25시절을 얘기하는 것 같아 저기가 겁도 나지만 초창기 경주캠퍼스를 거쳐간 모든 동국인들에게 분명한 소중한 추억거리이기에 몇자 적어본다.

79, 80학년 선배들의 학교생활은 개혁의 역사 그대로였다.

79학번은 지금의 경주고등학교 체육관 그것도 공사중인 임시교실

생활문화진단 유흥업소 24시간 개방후 피해 심각 학내문화 활성화등 대안 마련시급

인간은 성장하는 동안 얼굴 생김새가 세번 변한다고 한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원효원에서 노천강까지 16주년이라는 세월을 통해 끊임없이 변모해오는 동안 학교 주변은 어떻게 발전해왔을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난 집과 학교주변에서 나머지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생활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에 따라 주변지역의 발전방향이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주변지역을 성건동을 중심으로 성장과 금장으로 구분한다. 성건동이 유흥중심지라면 성장과 금장은 주거중심지이다.

흔히 성건동을 '성건리스베가스'라고 한다. 대학가 주변의 문화특성이 성건동에 밀집되어있기 때문이

다. 게다가 경주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지난 9월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자 성건동은 경주 최대 유흥가로 되어 버렸다.

이에 반해 석장과 금장은 주거중심지이면서도 제대로 갖춰진 상점 하나 없어 생활필수품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석장은 성건동으로만 몰리던 학생들이 이전해옴으로써 급속도로 가구가 증가하게 되자 최근에는 다양한 유흥상가들이 생겨나게 됐다.

그러나 금장의 경우 교통의 불편과 함께 황성동과 동천동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상업권을 형성하게 되었지만 그 영향력이 금장까지 미치지 못한 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성건동은 '성건리스베가스'라고 하면서 금장은 '실만한 곳'이 못된다고 말한다.

물론 그 기준은 생활에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되겠지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흥미거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우리는 대학가 주변의 변화에 앞서 우리의 생활태도 및 의식수준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하숙보다는 자취방을 선호하고 심지어 단독주택도 피스텔 전세도 마다않는다.

돈이 없어서 '잘'보다 '양'으로 막걸리를 마시던 옛날과는 달리 이제



는 맥주나 각테일소주를 마시고 무엇보다 '잘'이 우선이라며 양주를 즐겨 마시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석장이나 금장의 상점 주인들은 학생들이 성건동으로만 몰린다고 불평한다. 도서관은 텅텅 비었는데 술집에는 자리가 없다고 학생들은

불평한다.

얼굴생김새는 세번이 변해야 제 모습을 찾는다고 하는데 우리 대학과 대학가 주변은 이제야 발전하기 위한 변화를 시작한 것이다.

강의실 문화와 도서관 문화가 정착되고 아울러 대학가 문화가 발전

한다면 올바른 대학문화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이나 체육관의 24시간 개방등을 통해 대학내 문화부터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윤진화 기자)

온방골 이렇게 바꿔봅시다!

■ 학생회관 1층을 비롯한 대부분의 화장실을 깨끗이 수리해 주세요. 문짝이나 세면대가 너무 지저분해요.

- 불교학과 송은숙

■ 자연대에서 학생회관까지 비탈길이 너무나 험합니다. 자연대내에 휴게실과 문구점을 설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

- 전산학과 김지훈

■ 도서관 이용이 잦은 학우들을 위해 도서관내 사물함 설치를 바랍니다.

- 국경과 장우진

■ 여학생 휴게실에 왜 남자? 여학생 휴게실은 여학생만의 공간이 되도록 해 주시고 많은 시설과 함께 청결을 유지할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 가교과 박영미

■ 16세의 원기 왕성한 젊은 세기를 맞이하여 앞으로 펼쳐지는 대학개방화의 험난한 파고를 변화와 개혁의 깃발로 헤쳐 나가길 바랍니다.

- 생물학과 김경민

■ 예측된 체재보다는 조금은 주

체적이며 자주적인 체제를 통해 노력하고 발전할수 있는 동국인이 됩시다.

- 국사학과 이창철

■ 교수님은 학생의 입장에서 좀더 적극적인 강의로 학생을 이끌어 주시고 학생은 능동적 자세로 열띤 강의의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양강화 개선을 바랍니다.

- 국문학과 J E

■ 미비한 학내시설의 원만한 이용을 위해 만족할만한 시설 확충을 바라며, PC실습실이 개방시간을 늘려 좀더 많은 학우가 이용할수 있길 바랍니다.

- 가교과 정순희

■ 경주 자치권 확보 그 한걸음 우리모두 열심히 투쟁합시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 법학(야) 김필중

■ 수업도 많고 책도 많고 가방은 무겁고...가교과에 사물함을 설치해 주세요.

- 가교과 오은영

■ 모든 동아리방에 비품이 부족합니다. 설립 16주년을 맞아 왕성

한 활동을 위해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경영(야) 배성우

■ 도서관내 참고도서실이나 정기 간행물실에서 원하는 책이나 자료를 찾을수 없는 경우가 있다. 좀더 많은 자료가 확보되었으면 한다.

- 전산(야) 김중성

■ 교내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겹겹이 질주하여 학우들의 마음을 조리게 하는 일이 가끔있다. 자체를 위한 강구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 영문학과 양예선

■ 아직 대학 문화를 접하게 된지 얼마되지 않아 서투른 생활의 연속이 많은 시간동안 동대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할수있도록 많이 도와주길 바랍니다.

- 가교과 박영애

■ 원효관과 학생회관을 잇는길에 포장이 된다면 미관상, 교통상 좋을것 같다. 대학의 특색을 느낄수 있도록 개성적 색채를 칠한다면 어떨지...

- 국경과 한정오

■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를 몇번

타야하는지? 한 코스밖에 되지 않는 구간을 300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야 하나? 원만한 등·하교와 학생복지차원에서 스쿨버스를 운영하면 한다.

- 가교과 김재형

■ 불교 종립 대학으로서 학생이 주체가 될수있는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 자리를 굳히길 바랍니다.

- 관경과 심왕선

■ 설립 16주년을 맞이하여 학교가 발전한것은 사실이지만 당초 설립계획에는 부응하지 않는 수준이다. 모두의 단결된 노력으로 학교의 위상을 높여주세요.

- 경영학과 박상식

■ 재단의 무성함으로 학교 재반시설 부족, 교수진의 부족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 재단측의 확고한 투자가 필요하다.

- 의예과 손정영

■ 4년동안 우리의 삶과 터전인 학교를 깨끗이 가꾸고 보살피십시오.

- 법(야) 오상화

■ 학생회관 4층 신축으로 원효

관 옥상의 대부분의 동아리들이 새 보금자리를 찾았지만 아직도 동아리방에 대한 문제가 많다. 확실한 대책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 경제학과 이원구

■ 모든 학교행사에 대한 학우들의 참여도가 너무 낮다. 공동체 사에서 자신감을 고집하지 말고 협조적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한다.

- 법학과 공재필

■ 기숙사 매점의 무성함과 불편함에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정밀 진심의 시정을 바란다.

- 조경학과 김태오

■ 자판기에 신고함을 달아서 기계사용시 불편을 줄였으면 한다.

- 장중운

■ 학교의 실정을 일반 학우들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총학의 움직임을 학우들에게 공개하면 어떨지...

- 국경과 윤재우

■ 경주캠퍼스 설립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발전되고 교수, 학생, 총학의 단결된 힘으로 동국의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 전산(야) 성범석

■ 실력있는 교수들의 영입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일문학과 김은섭

■ 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 많이 노력했으면 살고 캠퍼스를 사랑하고 아꼈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자.

- 한문학과 태병민

■ 학교가 쓸쓸하기 짝이없다. 행사도 없고, 낭만도 없고, 관심도, 참여도 없다.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 행정학과 이상학

■ 경주캠퍼스의 16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학교와 더불어 선봉 경제학과와의 무한한 발전을 바랍니다.

- 경제학과 최준미

■ 2학기 들어서 전산 시설이 많이 보강되어졌다는 소식은 접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용제한이 너무 많다.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규제 완화조치가 내리길 바랍니다.

- 법학과 오호영

!립16주년-동문에게 듣는다

‘우리는 하나의 지방캠퍼스가 아니다’

우리는 정체지위가 되어서는 아니다. 변해야 하며, 노력해야 하고, 세계화에 동참해야만 국제화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의 지방캠퍼스가 아니다”

2년 전 여름방학동안 여행을 좋아 하는 한 미국인을 이틀간 경주캠퍼스를 안내한 적이 있다. 함께하는 동안 여러가지 의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중 하나가 자기는 여행 할때마다 그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특징에 대한 자료수집을 사전에 마치고 여행한다는 점과 그나라의 미래발전성을 자기 스스로 예측해 보는 것에 여행의 목적을 둔다고 하였다.

한국을 방문하는 목적은 오천년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대두되는 한국의 지력을 살피기 위함이었으며, 한국의

역사를 알고자 문화유적지를 탐방 하였으며,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젊은 이들의 의식, 교육기관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의 많은 대학을 가운데 가장 한국적인 대학의 찾아보고 노력하였는데 한국문화의 뿌리와 가장 연관이 있는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동국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고,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대구 경주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설립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백년대계의 안목을 갖춘 한국 최고의 대학으로 발전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그는 세계유수대학인 영국의 옥스포드, 캠브리지, 일본의 교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레겐스 부르크 등 각대학들이 독특한 그나

리의 특유의 정신문화를 뿌리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개인소득 1만불의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세계를 무대로 뻗어가는 시대에 와있다. 동방의 등불 우리나라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세계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21세기를 주도할진대 세계 최고가 아닌 살아남지 못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비추어 봐서도 모방이 아닌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최고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대학중의 하나인 동국대학교는 심오한 불교정신과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한 신라화랑정신을 이어 받아 본교 재학생이 계승할때 다가오는 21세기의 주역은 우리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앞에 놓여진 여러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전 동국인이 하나되어 개화, 국제화의 주역으로 웅망정진 할때 동국은 더욱 빛날 것이다.

이상기
(경제학과 83년졸-제1대 학도호국단장, 현 경주캠퍼스학장)

기획시리즈-원효관에서 자연과학관 까지 교세확장 및 정부와 이해 관계의 산물 명실상부한 종합대학 위상 세워

경주캠퍼스가 설립된지 16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16년동안 이룩해온 경주캠퍼스의 양적 질적 토대가 21세기로 향해 점점 다져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학종합평가 교육시장개방등 전국 대학들이 치해 있는 현실이 우리대학에도 서서히, 험하게 지나칠수 없는 시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경주캠퍼스의 발전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 우리대학의 상황 등을 진단함으로써 경주캠퍼스의 발전을 위한 '원효관에서 자연과학관까지'를 주제로 기획해 본다.

(연필자)

1. 경주캠퍼스의 태동



△78년도 그당시 경주대학 설립을 알린 동대신문

이러한 건설본부측의 '움직임과 교육계획에 따라 드디어 1979년 3월 5일 10개학과 신입생 4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캠퍼스 교문이 열리게 됐다.

경주캠퍼스 설립배경
서울캠퍼스 이부대학 4개학과 신설과 함께 이뤄진 경주캠퍼스 설립은 경주대학 4백명 이부대학 2백50명 총 6백50명이 증원 됨으로써 79학년도 입학정원의 대대적인 조정(기존 입학정원의 약50%에 달하는 1천9백60명)을 가져오게 한다.

이는 경주캠퍼스의 설립이 본교의 획기적인 교세확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

교세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진 경주캠퍼스의 설립은 70년대말 사회적현상에서 맥을 찾을수 있다. 74년 정부의 수도권연구 억제정

책으로 인해 사실상 서울소재 대학들의 학생정원이 동결되게 된다.

정부의 지원금없이 등록금만으로 운영해야하는 사립대학들은 재정을 타개하고 지방대학 육성에 기여한다는 교육적인 명분으로 제2캠퍼스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제2캠퍼스의 건설을 수도권 인구 분산과 각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정부정책과 맞물려 더욱 활발하게 진행됐다.

사회적으로 불어닥친 제2캠퍼스 설립열풍은 그당시 서울소재 대학들에게는 간과될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본교 이사회에서도 75년 4월 제2캠퍼스 설치를 결의하고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의 발전지인 이곳 경주에서 제2캠퍼스의 터를 잡게 된다.

경주캠퍼스뿐만 아닌 그당시 제2캠퍼스들의 설립배경은 정부와 사학재단간이 상호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인점에서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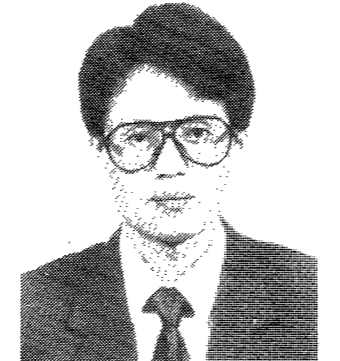
경주대학에서 경주캠퍼스로 1985년 경주캠퍼스의 획기적인 전환기로서 의미있는 해였다.

이전의 단과대학체제를 일대 개편하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로 탈바꿈됨으로써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설립 16주년을 맞이한 경주 캠퍼스는 교원 약2백40여명, 직원 1백 40여명 재적학생 약1만명으로 종합대학에 걸맞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97년도에 실시될 대학종합평가를 앞둔 경주캠퍼스는 새로운 전환기에 서있다. (김태성 기자)

의 풍류를 느낄줄 아는 멋있는 대학 생활을 위해



이제, 지금 재학중인 학생들은 나보다 멋있게 신라인들의 혼을 느껴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의 혼속에 스며들고 풍류를 알고서 반석로 만들 것이다. 이것은 진정 멋있는 대학에서 멋있는 학생들만의 것이기 때문이다. 후배들의 멋있는 삶을 위하여...

김제완
(86년 법학과졸-제34회 사법고시 합격)

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지금도 이곳에는 멋을 아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있으니.

내가 경주캠퍼스 학생시절 법학과 선배 한 분이 있었다. 그 분은 전공이 법학이면서도 학교 뒷산부터 시작해서 경주에 있는 웅만한 산은 다 돌아다녔다. 선배님에게 왜 그러냐고 물으면 "신라인들의 체취를 느끼고 싶어서"라고 잘라 말한다. 그러면서 깨어진 기왓장 하나에도 그들의 혼이 들어 있다며 주워 모으셨다. 어느날 나보고 경주에 있으면서 꼭가봐야 할 곳이 있다. 여근굴. 그곳에 한 번 올라가 봐야 한다. 그 한가운데는 샘까지 있다. 그러나, 아깝게도 나는 그곳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 다만 고속버스안에서 그곳을 지나칠때면 농철세라 찾아보곤 했을 뿐이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곳에 직접 가보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내 스스로 멋이 적어서 쟤지만, 변명을 하자면 선덕여왕의 팔대로 "상남근이 여근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지 않던가.

나는 이 멋있는 대학을 다니며 옛 신라인들의 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하다. 책과 씨름할 줄은 알았지 발로 다니며 그들의 혼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다. 2학년 때이던가, 한번은 한밤중에 친한친구 두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서 석굴암에 올라가 해돋이를 본다면 잔잔이 있지만, 그날은 해가 뜨지 않아 해돋이를 보지 못했다. 그것이 아쉬워서인지 해마다 12월31일에는 경주에 가서 예뻐한 종소리를 듣고, 막바로 석굴암으로 가서 해돋이를 보는 것이 연중행사가 되어버렸다.

세로 타게했다.

그는 '역사는 스스로 진보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진보시킬 수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역사도 그날 두어서는 진보할 수 없다. 30대의 진단은 여기서 생기는 것이다.

동국대학교는 민족의 대학이다. 이제 혁신적인 경영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목은 하드웨어를 돌려 '새로운 생산품을 쏟아낼' 신선한 프로그램이 지금 즉시 설치되어야 한다. 역사를 진보시킬 동문의 힘이 되는 데 그 누구도 주저해서는 안된다. 재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동국의 주체성이 모두 나서야 할 때 이므로 이 30대들도 다시 운동화끈을 매고 싶다.

이종현
(인문대 국문과 90졸-제6대 총학생회장)

동국의 역사는 스스로 진보하지 않는다

이키기 조차 골짜기처럼 5-6공의 폭압을 받고 이념과 정당의 기치를 내세우기도 했으며, 통일을 향한 정연한 모습을 보여 국민 대다수가 아, 분단이었구나하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갖게 했던 그 세대들.

화원의 문제가 체계적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총장직선제를 위해 손가락을 물어뜯기도 하고, 교과위를 구성해 강의 시간표에서 군사훈련을 제외시키기도 했던 30대들은 무엇이고 있을 것인가?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잔치가 끝난 뒤의 식은 국밥으로 남아 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가끔 모교에 들려보면 높은 소리로 췌어지는 최신가요를 들곤한다. 총장 직선제 사수를 위해 그야말로 고사리 손을 움켜쥐고 몇 안되는 후배들을 본다. 그때마다 교육개방에 따라 폐교하게 될 대학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던 일간지의 협박이 뒷받침을 잡는다. 다양성에 대한 지나친 비판이겠지만 어느 일간지의 우수대학 순위에서 자신의 모교가 올라있지 않았을 때 묘한 오기가 생기던 부류들도 그 30대들이었다.

역사의 결정론을 부정하고 마르크스는 물론 해결, 플라톤까지 적으로 풀렸던 칼 포퍼옹이 얼마전 92

제7대 법정대 학생회(회장=차승렬·법4)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법정대학술제를 개최한다.

주요행사일정을 살펴보면 △26일=행정학과주최 영화상영 △27일=법정대주최 초청강연회-강정구(사회학)교수의 '열린사회를 위하여', 오후 3시 녹야원, 아간과정 법학과주최 '제8회 형사모의 재판-성회통에 대한 형법적 접근', 오후2시 소강당(미정) △28일=법학과주최 법과강연회-박영길(법학)교수와 이용권선생의 '지적소유권' 오후 2시 진흥관(B101) △31일='노래를 찾는 사람들'공연이 오후 4시, 7시,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모의재판행사에 대해 아간과정 법학과 학생회장 이상희군은 "서울대 우조교섭희롱사건 이후사

법정대 학술제 개최 모의재판등 행사기획

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성회통'에 대한 한인의 기회를 갖고자 했다"고 밝히며, "아간과정 법학과에서 처음으로 모의재판이 실시되므로, 이것을 계기로 수업에서 배웠던 것을 활용하는 한편, 학회구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판결의 객관적 입장을 위해 사회각층 여성및 학생 1백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공연은 당초 지난 7일로 예정되었으나 오는 31일로 연기되었다.

회장 차승렬군은 "법정대의 행사가 아닌 전학우의 행사가 되어, 법을 더 친숙하게 느끼고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원 체육대회 16일 실시

본교의료원(원장=김인홍·정치외교과)은 '제3회 동국대학교 의료원 체육대회'를 오는 16일 오전9시30분 본교 대운동장및 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행사는 1부 체육행사로 △개회식 △각 종목별 경기 △폐회식과 2부 △오락경연 △바자회 및 찬조출연 순으로 진행되며, 총장·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포항병원, 서울·인천·경주한방병원의 진료교수, 직원, 용역들이 참가해 축구, 배구, 줄다리기, 4백계주등을 실시한다.

한편, 행사의 한 관계자는 "유대관계 강화 및 노사화합의 건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이라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직원노조 출범식

경주캠퍼스 직원노조(위원장=김종규·관과과)는 오는 21일 오전11시 출범식 및 체육대회를 소강당(미정), 체육관 일대에서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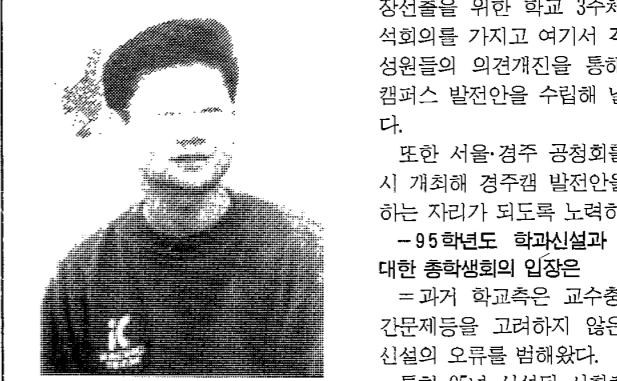
출범식과 함께 치될 이번 체육대회는 배구, 줄다리기, 터치볼등의 정식경기과 O·X퀴즈대회의 번외경기로 나누어 실시되며 이번 행

총대 후보등록마감

경주캠퍼스 학생자치기구선거가 오는 (12일)총대의원회 후보자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총대의원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윤길주·국제경제4) 이하 선관위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후보자등록을 마감하고 내일(13일) 1차 물미팅, 오는 24일 2차 물

녹야원 부총학생회장 박형규(철4)군을 만나



장선출을 위한 학교 3주체의 연석회의를 가지고 여기서 각 주체성원들의 의견개진을 통해 경주 캠퍼스 발전안을 수립해 낼 것이다.

또한 서울-경주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 경주캠 발전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95학년도 학과신설과 증원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은
= 과거 학교측은 교수총연, 공간문제등을 고려하지 않은 학과신설의 오류를 밝혀냈다.
특히 95년 신설된 사회체육 국악과는 특수한 공간문제와 교수총연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학교측의 공식적 답변을 듣고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
- 학생회 사업을 하면서 느낀점이 있다면
=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틀을 깨어버리고 학우들과 함께 하는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사업진행에 있어 각 학생기구들과의 편의의 차이가 많이 갈등의 폭을 줄이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은 환경문제에 대해 주력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농부의 자세로 학교를 키울 차례

에서 1년을 보냈고 80학번은 원효관 건물이 반쯤 지어졌을때 입학하여 캠퍼스이던 공사장에서 대학생 생활을 시작했다.

원효관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학교건물이었기에 모든 학교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건물이었다.

지하의 학생휴게실, 식당, 1층의 실험실, 속식실, 여학생실습, 2층의 교학과, 3층의 도서관, 4층의 연구실, 옥상의 씨름등등.

좁은 공간의 한 건물에서 몇년을 같이 보내다보니 학반 화과 구별없이 동국인이라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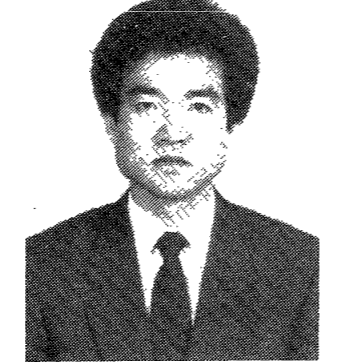
봄이면 원효관 중정에서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고 남산을 오르며 신라천년의 정기를 이어 받았고 했으며 가을이면 황성공원에서 용형정

진하는 백상의 체질을 벌였다.

교수님은 전세년 여권을 임시숙소로 사용하며 지내야 했고 교직원 은 교학과라는 단일 부서속에 장학, 교무, 학생파트를 맡아 한사람이 지금의 한과에 해당하는 업무를 도맡아 있었다.

식당도 없어 건설현장 인부들과 같이 사용하던 판자집식당의 딱딱한 국수맛, 뒷마를 죽림장의 얼얼한 막걸리, 동국대 졸업장을 달라며 형님같이 지내던 경주서 정보과의 돼지고기 정형사, 많은 입문수 학생들과 제일 많이 부대껴야 했던 서점 선생님, 학생이גיע에 신문사 기자들이 외쳤던 동대신문사 악당들. 모두가 빛바랜 앨범속의 한장면들이다.

나는 아직도 스물두번째 등록금을 동국대에 납부한 학생이다(00년



근속상을 받아야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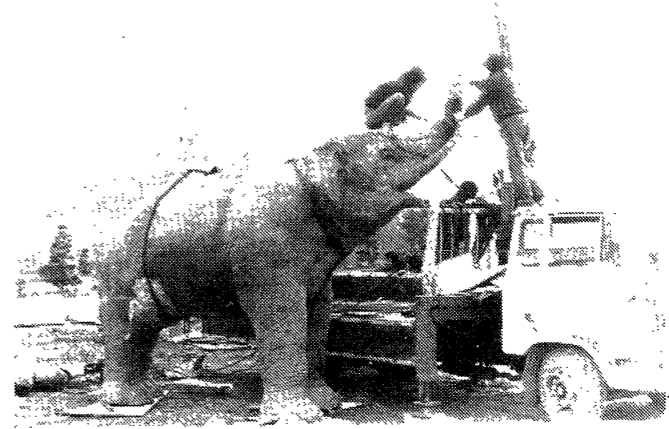
초창기선배들이 캠퍼스의 틀하나 나무하나 아끼며 오늘을 일궈낸 개척정신이 있었다면 지금은 비록주고 거름줘야 하는 농부의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먼 훗날 튼튼한 열매를 위해 좀더 강한인 동국의 혼과 정신을 가진 후배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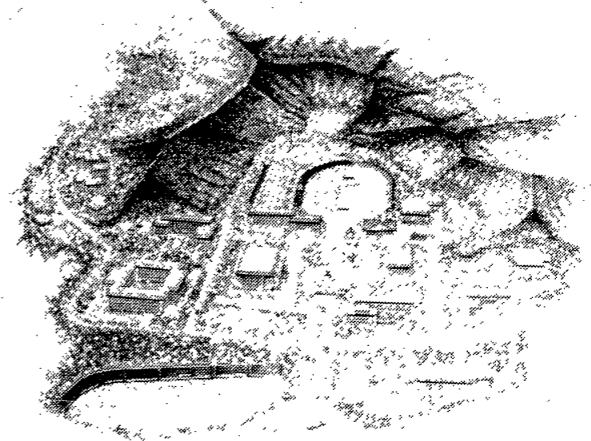
양희태
(한외학과 88졸-본사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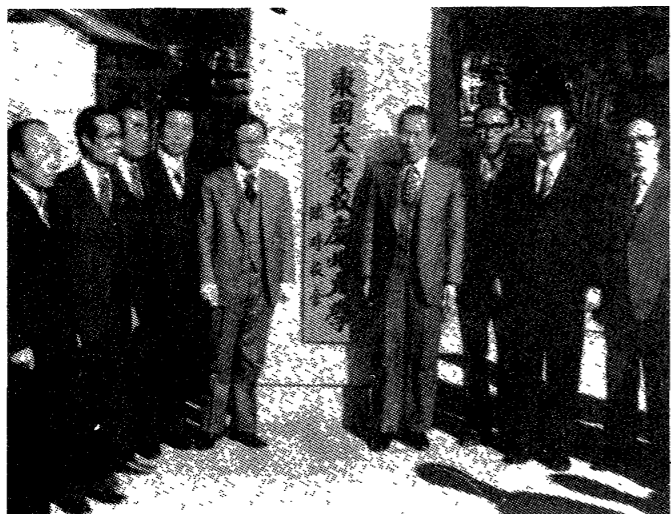
78년 경주 캠퍼스 원형관 기초공사중인 장면



90년 2월20일 상징탑 공사 제6대 총학생회 학원자주화 투쟁을 통해 상징탑 재건사업을 추진 이후 26일 백상탑 낙성식을 가졌다.



88년 10월 경주캠퍼스 마스터플랜 덕아웃이 돋보이는 소운동장이 시선을 끈다.



78년 11월29일 경주대학 임시교사 현판식 당시 경주고등학교에 임시 교사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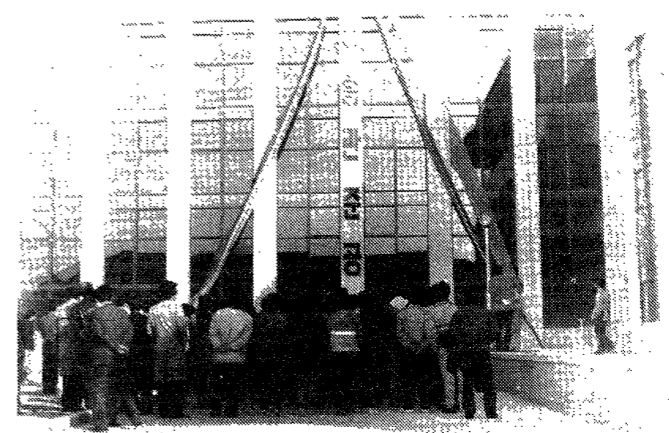
◆ 사진화보

16년의 발자취, 발전과 역동의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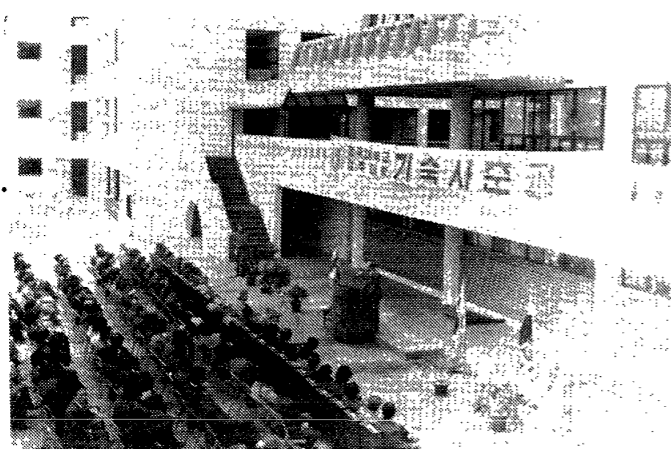
경주캠퍼스의 지난 16년은 설립을 출발점으로 꾸준히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세월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 큰 발전을 위한 도약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사진화보를 기획한다. (편집자)

중요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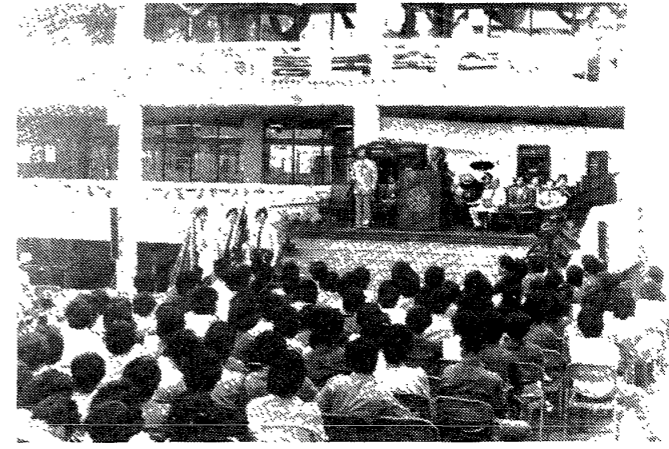
- 78년 10월12일 경주대학설립-10개학과 400명 모집확정
- 78년 11월27일 경주대학 발족
- 80년 5월30일 경주대학 원형관 준공
- 81년 2월29일 한의학관 준공
- 83년 12월29일 한방병원 개설
- 84년 10월5일 문과과 법정 한의과 대학으로 개편 캠퍼스 승격
- 85년 1월31일 경주캠퍼스 학생회관 준공
- 88년 10월1일 포항병원 인수 외대부속병원
- 88년 11월31일 지역개발대학원 설립, 동국의료원 설치
- 90년 2월 정직원 준공
- 91년 9월16일 기초과학센터 착공
- 91년 10월22일 경주병원 개원
- 93년 8월 자연과학관 개관
- 94년 10월 현재 6개 단과대학 36개학과 1개 특수대학원으로 구성



87년 2월27일 진흥관 준공식 자연대·상경대·법정대는 진흥관에서 전공수업을 하게됐다.



81년 금장학사 준공식 영남지역대학기숙사중 규모와 시설면에서 최고를 자랑했다.



84년 4월 제4회 동국축전 단란한 가족잔치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

1995년 2월 졸업예정자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합니다.

-아 래-

- 대상: 95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사범대학생이나 교직과정 이수자.
- 접수기간: 1994. 10. 10-10.21까지
- 접수처: 사범대학 교학과
- 제출서류: 교원자격증 발급신청서(사범대학 교학과 및 각 대학교학과배치)

사범대학장

영국유학설명회 개최

학생생활 연구소에서는 영국유학설명회를 아래 일정과 같이 개최하여 영국유학에 관심있는 재학생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영국 문화원 소속 강사의 강연과 V. T. R. 방영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국유학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고자 하는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정-

- 일시: 1994년 10월25일(화) 오후 3:00~5:00
- 장소: 학림관 교육매체센터(J312실)
- 주최: 영국문화원
- 후원: 학생생활연구소(교수회관 3-1호 ☎3506)

94학번만 보십시오!!

“대학에 들어온지 약 8개월 정도... 뭔가 보람되고 알찬 생활을 하고 싶은데... 하나, 혹시 이것이 지금 당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둘, 지금 당신의 대학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셋, 혹시 새로운 생활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동국대학교 영문 저널 The Dongguk Post는 장차 The Dongguk Post를 이끌어갈 신입기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학언론과 실용영어에 관심있는 신입생 여러분!! 한번 선택이 대학생활을 좌우합니다. 지금! The Dongguk Post의 문을 힘차게 두드리십시오.

입사원서 교부: 10월10일-14일까지 본사에서 교부
 면접 보는 날 : 10월14일
 면접 보는 곳 : 본사(학생회관 지하에 위치)
 시험은 어떻게: 전자 간단한 영어와 그리고 자기표현

대학언론의 선두

The Dongguk Post

신라 문화유적 답사

겨레의 혼을 알고 싶으면 서라벌의 흥남새를 맡아 보라 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원류를 찾자 한다면 경주남산 돌부처의 미소를 만나보라 했습니다. 젊어이여! 우리한번 겨레의 혼과 향기를 몸으로 체득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부대껴 보시질 않겠습니까? 우리겨레의 힘찬 미래를 열어 보시질 않겠습니까?

- 주 최: 동국대학교 불교학생회, 제11대 총학생회 종교부, 남산불국 연구회
- 후 원: 불교도 연합회, 불교문화대, 정각원, 불국사, 신라문화원, 경주시·군 시행단체 협의회
- 일 시: 불기 2538년 11월5일 오전 9시~오후 6시
- 장 소: 동국대학교 옥야실(슬라이드 상영) 경주일대
- 대 상: 전동국인, 경주전문대, 경주대 학생
- 일 정: 사천왕사지→능지탑→(중생사)→(황복사지)→황룡사지→분황사→안압지→굴불암→기림사→감은사지→대왕암→이전대
- 초청인사: 교정 윤경렬 선생님
- 참가비: 7000원

◇경복궁 '진시황전' 관람에 앞서

인물소조상·군마의 모습, 장엄함 과시
지하군단의 위풍당당함 보여줘

'북경(北京)에 가서 만리장성을 보지 않고 돌아오면 중국에 다녀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만리장성이 중국을 대표하는 걸출한 문화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다르게 이야기되고 있다. 서안(西安)에 가서 진시황의 병마俑을 보지 않으면 중국에 간 것이 아니라고도 하는 그런 큰 예술적 감각과 장엄함을 지닌 수많은 인물소조상과 군마의 모습이 탄성을 자아내게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황하(黃河)와 양자강(揚子江) 두 강의 분수령을 이루는 진령(秦嶺)의 지맥이 여산(嶺山)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북쪽 산맥에 거대한 능선이 위치하고 있다. 중국 최초의 황제로 일컬어졌던 진시황제(秦始皇帝)의 여산능이 그것이다.

중국의 고도 장안(오늘날의 서안)에서 서쪽으로 약 35킬로 떨어진 서서성(陝西臨潼縣)에 자리잡은 이 여산능은 시황제가 생전에 호사를 다하여 축조한 능으로 알려진다. 그 능의 주인공인 시황제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그 평가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을 춘추전국(春秋戰國)의 혼란에서 구해내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한편 중화의 세계를 통일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가 하면, 오래 전부터 전해오던 아방공조자 불굴(佛骨)을 불태우고 유생(儒生) 4백69여

명을 강유곡(坑儒谷)에 생매장시키고 70만명의 인부를 징용하여 아방궁과 여산능을 건설하는 등 사치를 다하였으며, 그 까닭에 현재 여산능의 주위 지하에는 수많은 백골이 파묻혀 있다고 전해질만큼 잔인한 폭군이라는 평가도 받아왔다.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시황제 능은 높이 58장, 주위의 길이 2.5킬로, 담장은 이중으로 되어 안팎에 전당이 임립했다 한다.

오늘날의 고층에 의하면 여산능의 능원은 한변의 길이 7.5킬로, 총면적은 56.25 평방킬로에 달한다 한다. 능의 내부의 조영도 사치의 극을 다했다. 구리를 녹여부어 궁전과 누각을 만들고 산해의 진보로 장식하였으며 실제의 조당(祠堂)과 같이 꾸민 전에는 백관의 좌위가 서열순으로 놓여져 있다하니 병마俑과 같이 문무 백관의 소조상이 놓여져 있었을까 추측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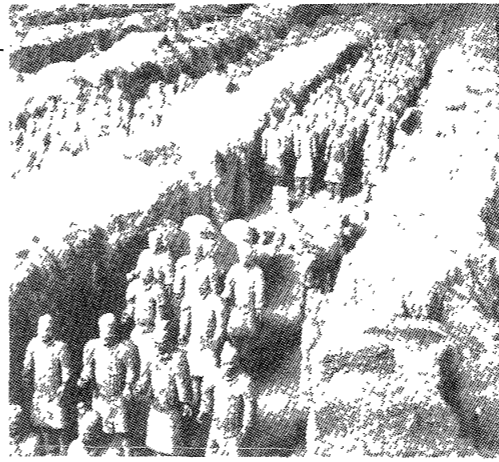
이 신화와 같은 지하궁정은 36년에 걸쳐 준공을 서두르는 중 시황제가 중국통일을 순시하는 도중에 병사함으로써 완성되지 못한채 이 여산능에 매장되었다. 시황제 사후 전국(全國)의 혼란에서 구해내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한편 중화의 세계를 통일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가 하면, 오래 전부터 전해오던 아방공조자 불굴(佛骨)을 불태우고 유생(儒生) 4백69여

명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오직 신화로써만 남아있게 되었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 여산의 산속으로부터 백두스가 전하여져 세계를 아연케 하였다. 시황제능의 동쪽에서 면적 2만평방미터에 달하는 고대 소조의 보고가 발견된 것이다. 등신대(等身大)의 군인과 말, 그리고 전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정연하게 매장되어 있음이 발견된 것이다.

조사결과 매장물은 대략 무사 8백구, 군마 6백두 전차 1백2십오량에 달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레는 목제, 병마는 도제(陶製)였다. 흔히 병마俑으로 불리우는 시황제의 지하군단은 질서정연하게 군진을 형성하여 2천2백여년전 시황제가 6국을 통일할 당시의 위풍당당함과 감대함을 오늘날의 모든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여산 산속의 기적은 실로 우연한 기회에 발견되었다 한다. 마치 공주의 무령왕릉의 발견처럼. 1974년 3월 이지역의 농민이 우물을 파던중 길이 4미터의 지역에서 도편(陶片)의 한부분이 나오자 처음에는 별것이 아니라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의깊게 파본 결과 투구를 쓴 도제(陶製)의 무사인지라, 이를 본 농민들이 관계기관에 보고하게 되었고 이에 고고학자들

◇진시황은 자신의 영혼을 지켜줄 지하군단을 만들어 사후세계를 준비하였다.



의 과학적 발굴이 행해지면서 불가사의한 고대문화의 보고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한다.

우물을 파다가 우연히 발굴된 경(坑)을 후에 1호경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1호경은 장방형의 군진을 이루고 있다. 동서 2백30미터, 남북 62미터, 길이 4.5~6.5미터. 군진의 주체는 중앙에 동서로 9개의 도랑을 파고 주위는 회랑으로 되어 있다. 회랑에는 도병(陶兵)·도마(陶馬) 약 6천점이 놓여 있다.

군진의 전위는 감사 2백4인이 1열68인씩 3열 횡대로 꾸며져 있고, 주력부대의 9개의 도랑에는 각각 4열, 남북 각기 1열씩, 합하여 38열의 긴 중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 대열과 대열 사이에는 네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가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회랑의 남·서·북면에는 활을 쏘는 전 호위대가 1열씩 도열하여 막을 향해 주시하고 있다.

발굴이 완료되어가면서 중국정부는 이고고적을 보호하기 위해 병마俑갱 위에 지상 23미터 길이 2백70미

터 폭 70미터에 달하는 돌형의 건물들을 지었다. 그후 이는 진시황병마俑 박물관으로서 내외에 개방되었으며, 그후에도 발굴작업이 계속된 결과 1천여구의 무사가 영면에서 깨어나고 8량의 전차를 끄는 30여두의 군마가 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한다.

필자가 1989년 2월, 이곳에 이르러 후의 동쪽관람대에 올라선 순간, 압축한 군진의 형성, 전장을 향해 도열하고 있는 모습에서 2천여년전의 전열터를 보는 것 같은 섬뜩함을 느꼈으며 그 위용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환각에 빠져들었던 것이 마치 어제 같다.

요즈음 경복궁안에 있는 옛 민속 박물관 자리에서 이 진시황병마俑수정(數點)이 전시되고 있다. 중국에서 가서 꼭 보아야 하는가. 서울에서도 중국의 2천여년전 보물을 볼 수 있지 않은가.

임영정 (사범대 역교과교수)

남북 통일맞이 말글정책 이야기마당 열려
“우리말 외국말에 폭행당하고 있다”

말글정책 관련 인물을 정해오고 있다. 김교수는 이전의 주시경, 이윤재, 최현배와 비교해 볼때도 “이회승은 전혀 바람직한 한국인상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김교수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회승은 한글만 쓰기를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현재도 계속 논란이 되고있는 한자조기교육등의 대립과 파장을 불러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한글만 쓰자는 주장에 한마디로 일본을 보라고 얘기했던 그였음을 감안할때 말글은 동가 허재영씨는 ‘사회평론’을 통해 “올해 제기된 ‘국제화’ 또는 ‘일본 문화 개방론’ 따위는 문화인물에 이회승이 선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일석과 같은 경성제대 출신 학자들의 학문적 뿌리가 서서히 자리잡음을 다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음”을 덧붙였다.

이회승을 10월 문화인물로 추천한 근거가 됐던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인한 욕고는 그가 육종교문을 받지않았다는 증언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과학적 국어학의 추구라는 동기에는 맞출법 통일안 제정에 참여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가 주장하는 과학적 국어학은 민족적인 것과 대립되는 개념인 실증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김영환교수는 “글자살도 대중적, 대중적 차원에서 싸워야 한다”고 말한다. 이회승이 편찬한 ‘국어대사전’역시 낱은 한자 어휘와 외국어의 무분별한 남발로 인해 바른 언어생활을 선도했다는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교수는 “한자말과 외국어를 많이 섞어쓰는 것이 바른 어문 생활인가”라고 반문하며 마무리 지었다.

광복후 우리말글 교육정책이 걸어온 길 두번째 발표자인 한글학회의 김

승곤교수는 친일파가 광복후 정권을 잡은뒤 말글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밝혔다. 그는 1953년 국무총리 백두진이 한글맞춤법 간소화에 대해 훈령8호를 발표하고 이승만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간소회의 이행을 촉구하였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른 내용은 상용한자 심사를 완료하여 이를 공포해야한다는 것이다. ‘68년 ‘모든 분야에서 한글을 전용하라’는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 이회승을 회장으로하는 한국어문교육연구회의 ‘한자교육부활촉구성명서’ 발표. 이때부터 한글전용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된다. 김승곤교수는 “혼용론자 장본인은 제국대 학생신이고 그 추종자들은 친일사상에 물든 이들이다”라고 규정한다. 누가 우리말과 한글 발전을 가로막는가 한글로만 살아갈 것을 주장하는 오동춘박사는 “우리말이 외국말에

간강당하고 있다”고 표현한다. ‘그린’열풍에 대해서도 ‘말부터 오열시켜 어릴 깨닫기 하자는 건가라고 되묻는다. 오박사는 국한혼용론자들의 각본을 실어온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정치이슈에 민감해드 말글문화에는 소홀한 대학생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또한 “우리말글살이살아오면 국민글자판 만들자”

마지막으로 임종철 한글워드프로세서 교육연구회장은 “비능률적인 무법칙 글자판을 빨리 폐기하고 알기 쉽고 낱자소 수정이 자유로운 세벌식 글자판을 택하자”고 발표했다. 그는 한글은 기계화에 있어서도 과학적으로 으뜸임을 말한다.

우리 말글살이에 초안을 가져온 일석 이회승이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것에서도 알수 있듯 현재의 말글정책이 얼마나 나아가지 못할은 사실이다. 그러한 말글정책이 특정한 화백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됨은 물론 화백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심층적으로 논의와 공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김소영 기자)

달 하나 천 강에
나는 ‘타자’가 되어가고 있다



어느날 부러진 인물은 자신의 심연의 골짜기로 빠져들고 있다는 절망감을 느낀다. 무언가를 갈구하며 성취해냈다는 편집적인 상념과 주변의 시선으로 다가오는 운명적인 한계사이에서, 때론 기쁨으로, 때론 슬픔으로 환희와 절망의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개별적 삶의 주체로서의 인간은 끈적이에 달라붙어 몸부림치는 하루살이 마냥 험악하며 발버둥치고

있다. 아니면 그저 하루 24시간 시계추에 매달려 그림없는 삶의 진동속에서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유희를 하고 있다. 인간조건일까? 아니면 삶의 가능성일까? 낙엽이 지는 가을이 되면 한뼘쯤 뒤돌아보아 반추해보는 인간의 모습이다.

깨어진 거울속에서 부서진 우리의 모습을 다시 꿰어보는 거울을 우리 마음 속에 담을 수가 있다면, 우리의 내리막 길은 적어도 평평한 단면에 굴절되어 우리마음을 위로하는 판도라 상자에 담길 수 있다. 사실상 우리의 내리막길은 인간 스스로를 망각시키는 길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것은 착시에 의한 오르막 길일 수도 있다. 아니면 오히려 내리는 행위는 어쩌면 나가고 들어가는 움직임일 수도 있다. 바로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내려가는 길을 올라가는 길로 체험할 수 있다면 그 두 움직임 사이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는 것일까?

삶이 언어로 구체화되어 현실로 드러날 때 이미 삶 자체가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시인들의 깨달음은 인생과 예술의 두 갈래 길을 가능하게 하는 잣대라 불리워져야하는가? 삶의 고통은 곧 예술의 환희로 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의 열린 마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 고통이 내리막길이라면 언어로 표현된 고통은 곧 오르막 길이라는 논리는 우리는 수긍할 수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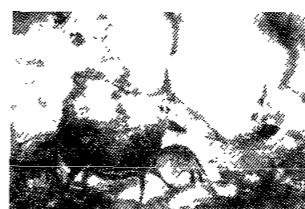
한 인간의 삶은 하루하루 반추할 때는 지리멸렬하지만, 한 세대에 걸친 회고일 때는 자극적이고 흥미롭다. 내 자신의 삶은 건조하지만 타인의 삶은 축축이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주는 이야기거리다. 반면, 나의 고통은 감당하기 힘든 절망의 실재이지만, 타인의 고통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희망의 허구이다. 그래서 타인의 절망은 삶의 소재요, ‘나’ 절망은 예술의 소재이다. 타인의 과거, 현재의 내리막 길은 나의 현재의 오르막 길이고, 나의 과거, 현재의 내리막 길은 나의 미래의 오르막 길이다. 예술은 인간의 진실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주며 대는 인위적 허구를 실재라만, 삶은 인간의 실재를 표방한 허구인데, 인생과 예술사이에서 우리의 존재는 무뎠을 땀이다.

한 개체발생적 존재에서 10년에 한번씩 되돌아 오는 의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계몽발생학적 철학적 인간주체에 대한 체계적 질문으로 전환되어 왔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했고, 루소는 나는 내가 아닌 타자라 했고, 이후 19세기의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 하이데거, 바르트, 푸코, 데리다, 라캉에 의해 나는 나이자 동시에 나 아닌 타자로 구성된 ‘double’로 재현되고 있다. 내가 나의 언어로 구성되는 사회적 자이라면, 나의 영혼과 정신은 이미 무수한 인간들의 영혼과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타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낙엽인가, 낙엽을 인지하는 영혼인가? 어느듯 흐르는 시간의 강물 속에서 서서히 가라앉는 나는 ‘타자’가 되어가고 있다.

김영민 문과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문화단신

◇김윤섭 '벽화실상점'



본교 재학생으로서의 최초로 김윤섭(미술3)군이 오는 16일까지 학생회관 3층 상설전시장에서 개인전 시회를 갖는다.

이번전시회에는 ‘세월 달린 들소’, ‘원시인’ 등 20여점이 전시된다.

보는 이에게 신비함을 선사하는 가슴 뭉클함을 전하고 한다는 김군은 “그림으로나마 꾸밈없는 진솔함을 표현하고 싶다”고 말한다.

오는 16일까지 / 학생회관 상설전시장

Advertisement for 'Nonghye Education' (농협교육) featuring the slogan "아침이 그날을 알려주듯 어린시절은 그의 미래를 알려준다" (Just as the morning tells us the day, childhood tells us the future). The ad includes a photo of children holding hands and text describing the program's focus on diverse education and cultural activities for children. It lists various educational services like TV, radio, and computer programs,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Nonghye Education (02)528-0114.

학생자치기구선거 본격시작

총대 김도학·최두성조- 박대용·김재웅조 등록

총학·총여 선거공영제 도입

학생자치기구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가장 먼저 선거를 치르는 총대의원회(이하 총대)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고 오는 20일 11개 단과대 후보자 등록도 마감된다.

총대 후보는 2팀으로 김도학(경영3)·최두성(전기3)조와 박대용(물리4)·김재웅(수학4)조가 등록했다. 후보들은 어제(11일) 선고공보용 사진을 촬영했고 동국대 다량관, 후문계사관에 13일 공보할 예정으로 이것으로 법정선거가 시작된다.

제2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한장섭·독문4 이하 중선위)는 총대선거에 비움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으며 2중류이하의 선거유인물로 2천부이하로 제작하도록 했다. 이후 선거 일정은 19일 한번의 유세를 가진후 19·20일에 투표를 치른다.

한편 제26대 중선위는 올해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 선거를 선거공영제로 치루기로 합에 따라 현수막, 선거유인물, 선거운동용 표식물 제작에 사용될 선거비용은 5백만원이하로 결정하고 이에따라 관리는 일체 중선위의 관리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투표지역을 7개로 증가하고 대교선전등 선거운동에 일정한 규제를 하고, 과열선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주의' 조치를 없애고 바로 '경고'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중선위에서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위원장=한장섭(총대의장·독문4) △사무장=김일곤(문과대 대의원장·사4) △중선위원=여용욱(선4), 백도나(사1), 최민(물리4), 김성일(물리4), 진화진(법4), 장기환(법3), 장대진(정의4), 장명환(정의3), 이윤철(경영4), 박종현(농4), 손경석(농2), 최두성(전기3), 이후석(국고4), 신현주(연영4), 이재관(정의4), 이경행(경영4), 조윤정(경영2)

△불교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여용욱·선4)는 오는 18일 1차 유세, 21일 2차 유세를 가진후 24, 25일에 투표를 실시한다.

△문과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일곤·사학4)는 오늘(12일)까지 등록지마감을 하며 19일 1차 유세, 21일 2차 유세를 하며 25일에서 26일 27일, 28일 양일간 투표를 실시 28일 개표한다.

△이과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최민·물리4)는 오는 21일 1차 유세, 26일 2차 유세를 가진후 27일에 투표를 실시한다.

△법과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사진환·법4)는 지난 7일 제8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10~11일=후보자 등록 △12일=사전촬영 △17일=선거공보 및 법정선거운동시작 △20일=전체유세 △21일=학내유세 △24~25일=투표 및 개표 △26일=당선공고 △27일=당선확정공고

△사화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장대진·정의4)는 제8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일정을 공고했다.

△6일=선거공고 △10일=후보자 등록시작 △11일=후보자등록마감 및 투표일 △12일=사전촬영 △17일=선거공보 및 법정선거운동시작 △20일=1차유세(동국관영) △25일=2차유세(동국관영) △26일=투표 및 개표 △27일=당선자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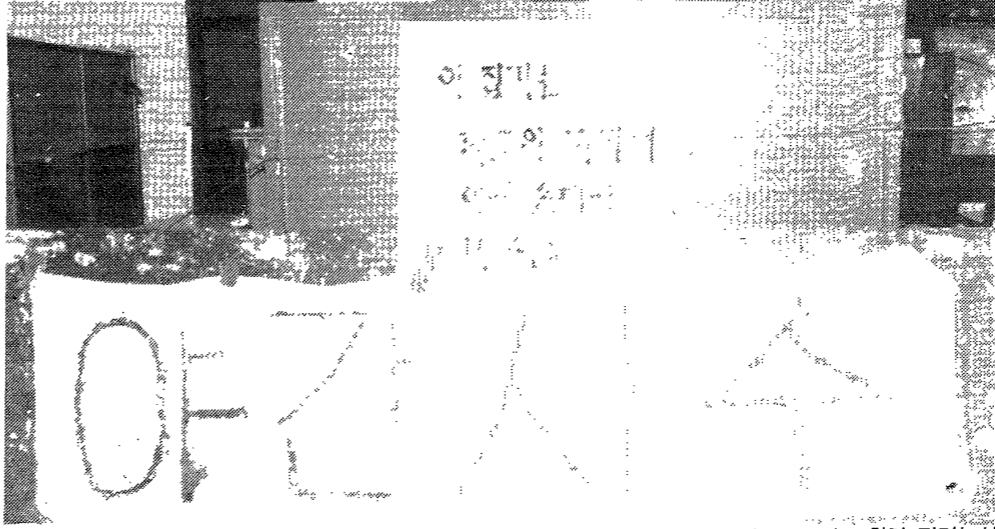
△경상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윤철·경영4이하선관위)는 지난 7일 제27대 정·부 학생회장 선거 일정 및 세부내용을 공고했다.

선거일정은 △7~12일=후보자등록기간 △12일=등록마감(오후5시), 사전촬영 △17일=후보자공보부착 및 법정선거운동시작 △20일=1차 유세(오후2시, 동국관영) △24일=2차 유세(〃) △25~26일=투표일이다.

△농과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종현·농학4)는 오늘(12일)까지 등록지마감을 하며 19일 1차 유세, 25일 2차 유세, 26일, 27일 양일간 투표한 후 27일 개표한다.

△사범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후석·국고4)는 어제(11일) 등록자 마감을 했으며 19일 1차 유세, 24일 2차 유세를 하며 25일에서 26일 투표를 실시하고 27일 당선공고를 낸다.

△예술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신현주·연영4)는 오늘(12일) 등록자 마감을 하며 21일 1차 유세, 26일 2차 유세를 벌이고 27일에서 28일 투표를 실시, 28일에 개표한다.



△아간강과 학생들은 지난 7일부터 무원칙한 증과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2부대 교학과 점검봉성 등에 들어갔다.

전산통계학군 신설...학교-학생 곤욕 학교측, 내년 교수 영입등 단편적 대안 제시

아간강과 전산통계학과가 95학년도부터 전산과학과(신설)와 함께 통합되고 아간강과에 신문방송학과 등 3개과 신설과 관련, 이를 거부하면서 아간강과 학생들이 이부대 교학과를 점거하고 이에 학교측이 대안 마련에 고심하는 등 증과 증원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산통계학과 학생들은 지난 7일 95학년도에 7개학과 신설과 함께 전산통계학과(이하 전통과)가 통계학과로의 명칭변환에 반발하면서 전통과 학과장을 함의 방문하고 학생회장이 단식농성을 하는 등 강한 거부사를 표현해 왔다. 이에 전산과학과와 전통과를 전산통계학군으로 통합해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기로 결정했다.

아간강과 총학생회(회장=곽유찬·영문3)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월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아간강과 장단기 발전안 확정과 총장직선제에 관한 의견개진운동을 실시하고 지난 7일 △증과증원과 학과통합에 대한 학교안 전면공개 및 참여보장 △무원칙한 증과증원 전면 백지화

△기존 신설학과 교육환경 개선책 제시 △상반기 합의사항 이행 △전산통계학과 과명 개칭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이부대 교학과 점거에 돌입한 상태이다.

아간강과 부총학생회장 강승성(경영3)군은 "학교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없이 증과로 인한 양적팽창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학과 제정체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없이 학과명칭을 바꾸고 또 사회적 호응이 미흡한 학군체제로 구체적 대안없이 바꾸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아간강과에 계속된 증과 이후 중간보다 2배이상 되는 유지비 감소를 위해 아간강과 개설학과를 주간학과에 통합하려는 학교측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했다.

전통과 및 아간강과 학생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어제(11일) 기획조정실장, 교수처장, 학생처장, 전통과 학과장과 전통과 학생들은 약 두시간에 걸쳐 전통과문제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창규(경영학) 기획조정실

장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10월 중으로 PC실 마련 및 컴퓨터 구입을 마치고 부족한 공간은 학술문화관 건립까지의 서로 이해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정병조(국민문화) 교수처장 역시 내년도에 70여명의 교수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혀 증과증원이 전혀 무원칙한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통과가 전산통계학군으로 변화하는 것이 학부제가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 반면 타 학교에서는 2~3년의 연구기간이후 학부제를 실시하는 것에 비해 본교에서는 그만한 연구기간이 없었다는 점에서 눈앞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봉책이 아닐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아간강과의 신설학과 문제 및 교육환경개선, 전통과 문제는 오늘(12일) 아간강과 학생대표와 학교측이 다시 대화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학전무대

안전(?)기획부

○...북한 장학금교수로 돌아 붙여졌던 성관관대 정연백교수가 7일 오전 풀려났다.

지난 5일 안기부에 의해 연행되었던 정교수는 20여시간동안 넘겨질것식의 심문을 받았다고

게다가 풀려난뒤 기성언론의 무책임한 매카시즘적 보도를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다고

이를 알 회전문대자 왈 "부족한 증거로 현직교수를 연행하는 안전기획부는 무슨 안전을 어떻게 기획하는지..."

별 대신 훈장주기

○...전공46등을 맞은 국군의 날 훈장수상자중 상당수가 하나회출신 5·18광주항쟁진압참가자, 비리로 인해 보직해임된 장성들이라고 해

발언. 특히 훈장수상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해임된 임모소장, 학교경비비리로 해임된 변모소장 및 광주항쟁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정모소장, 임·장모추진기 훈장을 받았다

특히 놀라운것은 지난달 27일 무장탈영사건이 일어난 53사단 사단장 이모소장까지도 훈장을 받았으니 문제가 될수 밖에

이름 본 어떤 시인 "미운놈 딱하니 더 좀더러 이변엔 죄 지은 군인 훈장마저 더 주는건가?"며 비웃어

김규구속

○...이 시대의 노동자는 아직도 죄인인가?

다름아니라 두달에 걸렸던 현대중공업노동쟁의사태가 노사 자율교섭에 의해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간부 26명을 긴급구속하는 눈앞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봉책이 아닐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아간강과의 신설학과 문제 및 교육환경개선, 전통과 문제는 오늘(12일) 아간강과 학생대표와 학교측이 다시 대화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본 회전문대자 왈 "민주노동건설에서의 '민'자와 문민정부의 '민'자가 발음뿐만 아닌 의미까지 상통하는 날은 언제 오려는지..."

신부감 부족시대

○... "나 드디어 팔려", "죽 하한다. 난 어떡하지? 아들이야" 다른 나라얘기 아닌 10년후 우리나라 얘기라고

다름아니라, 한 통계에 따르면 90년엔 남자 6명중 1명은 장가를 못가는 신부감부족이란 기이한 일이 발생할거라는데

이에 취업문제로 고민하던 한 여학우 "여성상위(7)시대가 오기전에 구시대유인 남이선호란 벽을 허무는건 어떨런지..."라며 한탄다.

졸준위

졸업사진 촬영·확인

제6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김정호·경제4 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2차 촬영확인 및 3차촬영을 실시한다.

2차 촬영확인은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졸업위사무실(학생회관 1층)에서 받고 10월5주(25·26일 중 하루, 미정)에 개인프로필용 3차촬영이 있다.

교수논문업적 발행

최근3년 연구물 공개

학술부(부장=홍승기·무역학)가 '교수연구업적'을 지난 8월 31일 발행했다.

대학총괄평가제 준비 및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보다 조직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책에는 지난 91년부터 93년까지 3년동안의 교수들의 연구물이 단행본과 논문으로 크게 구분되어 실려있다.

박정준계장은 "연구결과를 책으로 공개하는 것이 요즘의 일반적인 추세"라며 "차음 발간한 책이라 미흡한 점이 많아 이후에는 논문분류를 세분화하여 구성적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국문학회

문학의 밤 행사 다양

동국문학회는 '문학의 밤'행사로 어제(11일) 6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신형림씨 강연회를 열고 오늘 6시에는 김하계씨 강연회를 학림관 소강당에서, 내일(13일) 5시에는 학림관 소강당에서 시극 '아나나 조국이여-황석영을 그리며-'를 공연하며 시낭송발표회 '우리들의 이야기'

를 연다.

또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동악곳에서 시화전을 연다.

사회학과

15주년 기념행사

사회학과 학생회(회장=정성곤·3)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일그러진 대학생들의 새얼굴찾기'란 기조로 마련한 사회학과 15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행사일정은 △10(월)=연화광동체 '구영탄'이 보여주는 시계태양장치오렌지 △11(화)=광교소모임 F-IAD의 발표회(광교에 나타난 성표출에 관하여) △12(수)=한국사회연구회의 '지존과 사건을 통한 한국 사회분석'발표회(교수와의 간담회형식) △13(목)=체육대회(축구, 족구, 피구, 발아구), 사회학도의 밤 △15(토)=등반대회(수락산)

총동창회

동국인체육대회 개최

총동창회(회장=황명수)는 '제11회 동국인 체육대회'를 오는 23일 오전9시 경주캠퍼스 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경주지부총창회 주최의 이번행사는 △전야제 △참석자 등록및 대전표 추첨 △개회식 △경기 △폐회식 순으로 진행되며, 총창및 총동창회장단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육대회는 배구, 줄다리기, 장차꽃놀이등의 정식경기와 팔씨름, 사과짜기등의 변의경기로 실시

되며, 변의경기는 정식경기도중 별도로 진행된다.

한편, 행사의 한 관계자는 "이전의 영남지역 동문간의 체육대회가 아니라, 서울·대전·부산등 여러지역의 전 동국인이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전 동국인 체육대회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농대 풍년제 열려

제26대 농과대 학생회(회장=임기범·농생4)는 오는 12일부터 3일간 풍년제를 개최한다.

12일(씨뿌리는 날)에는 개막식및 체육대회, 토론회, 분재전시회등의

행사를 가지며, 13일(가꾸는 날)에는 체육대회 여러 종목결승및 영화상영, 강연회, 떡잔치등을 연다.

또 14일(거두는 날)에는 일산농장에서 교사, 기획행사, 과별행사와 시상식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영화상영은 산림지원학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새내기 생활에 대한 필름이어서 흥미롭다.

사무국장 손진석(농생3)군은 "풍년제는 단과대 1년사실 총화의 장이며 농대 4개과의 단결의 장이 되었다"며 "올해 풍년제는 농과대 명칭으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행사내용을 농과대 명칭의 중요성에 맞춰 만들었다"고 밝혔다.

창간 4주년을 맞아 내용과 맵시가 확 달라진 혁신호를 냈다.

한국의 대학 총장이 특적이다. 「지성과 패기」

선경그룹이 조선일보와 함께 마련하는 대학 연극인들의 신선한 경연장.

94년 10월에 본선이 펼쳐진다. 「대학 연극제」

「글로벌리제이션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의 전략」을 주제로 한 전국 대학(원)생들의 논문 공모전.

「글로벌리제이션 논문 대상」

선경이 펼치는 대학의 문화 마당- 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키워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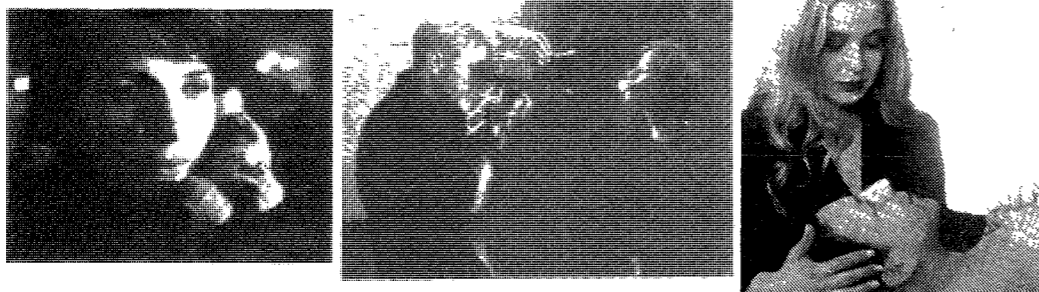
우리 시대의 대학 문화, 그 커다란 의미를 생각합니다. 사회가 변하는 동안 우리의 대학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학 주요제와 대동제 탈출관을 두루 즐길 줄 알고 옛것과 새것을 고루 누리는 다양성이 있으며 개성주의와 공동체론의 공존, 그런 것이 오히려 특징인 듯합니다.

대학 문화가 다양한 만큼 대학 문화를 보는 시각도 여러 갈래일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일 선경의 생각, 선경이 펼친 일들을 되짚어봅니다. 대학을 생각하고 대학인의 생각을 담은 잡지 「지성과 패기」, 연극을 사랑하는 대학인들이 꾸미는 창외의 무대 「대학 연극제」, 글로벌리제이션시대를 대비하는 논문공모전 「글로벌리제이션 논문 대상」.

지금 선경이 펼쳐 놓은 작은 마당입니다. 물론 선경이 많아 할 일이 이밖에 더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처음이라는 마음가짐을 흐트리지 않으면서 대학 문화를 바라보는 선경의 생각을 한껏 키워 가겠습니다.

영화의 패러독스

'세가지색'영화 이야기



세 개념의 분리 아닌 하나의 깃발

유럽통합 축제위한 협주곡 '자유, 그리고 사랑'

키에슬롭스키감독 연작, 시적 은유·상징의 영화

폴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감독 크쥐시토프 키에슬롭스키의 '세가지색'연작은 현대인의 삶의 지점이며, '화두'와 같은 영화이다. 프랑스극기에 있는 세가지색 블루, 화이트, 레드라는 각기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여, 이 영화는 바로 그 삼색이 의미하는 교훈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세편에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 그건 일상성이며, 존재의식, 도덕성에 대한 질문이다. 세편의 에피소드는 다 다르지만, 모두 남녀 사랑의 이야기며, 극적이거나 보다는 관조적이다. 감독은 이 영화들을 통해 인간성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한다. 그러한 감독의 노력을 관객들이 얼마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체로 뜬이론이 세편의 영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같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블루를 자유에 화이트를 평등에 레드를 박애로 각기 분리해서 보기도는, 각각의 색 속에 자유, 평등, 박애 세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블루'를 보면 폴리아라는 여주인공이 느끼는 절망적인 사랑의 회의는 주변의 소외된 인간들에 대한 애정으로 나아간다. 그건 자유이면서 동시에 평등이고, 박애이다. '화이트'는 평등을 말한다. 그러나 아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남편 카롤과 도미니카의 성적 자유를 통해 우리는 자유 개념을 엿보며(카롤이 조국 폴란드로 가서야 비로소 성적 능력이 회복되는 것은 의미있는 자유의 개념이다) '레드'에서는 마침내 '블루'와 '화이트'의 주인공들이 만나게 된다. 자유, 평등, 박애가 본래 하나의 개념임을 일리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는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의도가 세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 파악하고자 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키에슬롭스키는 현재의 '도덕론자'이다. 그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보다는 인간에 대한 신념이 더 중요하다는

'설교'를 한다. 그리고 그 신념은 바로 도덕과 양심에 의해서 회복된다는 것이다. 키에슬롭스키의 '세가지색'연작은 형식적인 면에서 탁월함을 보인다. 이미 과거에도 '십계(Decalogue)' 혹은 '열개의 짧은 이야기'라는 10편의 연작들을 통해 삶의 교훈을 단면적으로 그려나와 있다. 이러한 형식 자체가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옛적 지 파악을 위한 필라라 펠스 없는 요소임을 영화관객들은 알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그의 영화들은 '시적 은유의 영화' '상징'의 영화이다. 또한 '영화적 우화'인 것이다. 그가 진지한 역사학의 탐구보다도 이러한 이유는 그가 조국 없이 떠돌아 다니는 방황하는 예술가라는 데에 있다. 조국과 인간을 잃어버린 예술가가 꿈에도 간절히 바라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깃발인 것이다.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지역문화행사속의 대학의 역할을 진단한다

그 두번째-지역민과 대 화합의 장

'제1회 중구예술제'가 남긴 과제

하층단위 자발적 참여 대중적 공감필요

'동국인 가족 음악회', 동국중흥 다짐의 자리

대학과 지역민과의 대화합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제기된 '중구예술제'가 당초 기획과는 달리 대폭 축소됐다. 학교측 또는 학생자치기구간의 마찰과 불신, 예술대학회장의 사퇴로 이어지는 중구예술제 기간의 준비과정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여론이 높다.



◇중구예술제 개막행사의 일환인 '민중무대제전'이 지난 8일 만해광장에서 열렸다. 약 5백명가량 모인 이번 행사에서 경당, 태권, 한민회의 무예시범, 전문무예인의 태백무예시범이 치뤄졌다.

중구예술제는 올해 초 예술대학회를 주축으로 처음 논의되어오다가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대학의 역할을 고민하던 각주체들에게 확산, 지난 5월에는 50여 교수와 학생대표, 직원대표로 구성된 지역문화행사 준비를 위한 발기인 모임을 가졌다. 중구예술제의 의의로는 서울정도 6백년을 맞아 수도 중심부에 위치한 종합대학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다가오는 지방화시대를 대비 '열려있는 대학'의 이미지정립, 무엇보다도 동국발전의 재추체가 함께 준비함으로써 동국중흥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중구인과의 성과를 본다면 중구예술제 사전행사로 지난 7월중순부터 한달간 치뤄진 '주부미술대학'에 기할 수 있다. 이에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은 1백17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데서도 알 수 있다. 이후 지난 8월 중앙기획팀과 학생준비소위원회가 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만 무성할채 주부미술대학의 성과를 받아안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대학원학생회 김중국 총무는 행사에 대한 각주체들의 미온적인 자세를 지적하며 "내용에 대한 논의보다도 행사개최 여부에만 치중했다"고 말한다. 학생과의 한 관계자는 "행사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동국 중흥은 단지 무산이후

위의 결의에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집행력이 담보되지 못하는 흥운위의 위상을 거론하는 이도 적지 않다.

한편 중구예술제의 명칭논란에 관해 이종필(미술4)군은 "백상체전이 끝난후 10월 8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중구예술제와 단위축전에 대한 일정이 공유된 후에 명칭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필요가 없다"고 밝힌다. 총학생회가 제시한 "중구인과 함께하는 백상체전"에서도 불수있듯 백상체전에 중구예술제가 흡수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다. 이는 '발안' 담그고 생색내려하는 식의 주도권 다툼으로 비춰질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중구예술제가 남긴 후유증은 적지 않다. 학생준비소위에 참여했던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김정태(행정4)군은 "중구예술제를 학생회본연로 잘못 인식하는 이가 있으나 그에 대한 심층적 논의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동국문화회는 중구예술제 일원으로 강연회와 문학의 밤을 준비했다가 행사가 파기되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상황이고,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풍이라는 상당수다. "동국인 가족음악회"로 집중되면서 애초의 중구예술제가 지녔던 의의와 위상의 퇴색을 우려하는 지적

에 대해 이번행사의 연출을 맡은 이태범군은 "올해 제1회 중구예술제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하며 "동국인 가족음악회는 뉴서를 팔아 모니 오케스트라, 박인수교수,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초청공연을 비롯 마지막부분의 2백80인의 대합창을 통해 동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동국중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5일 만해광장에서 열리는 동국인 가족음악회를 어떻게 치뤄내는 가가 이제 남은 과제다.

주부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쓴 한 주부의 소감문에도 밝혀지듯 중구예술제는 예술대학생들만의 행사로 남을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제1회 중구예술제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일상사업도 겨우 치루는 상황'이라는 총학생회, 예산에 대한 고민부족, 상충단위에서만 논의되고 대중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점, 또한 하부에서 제기된 대중운동을 학생회상층에서 받아안지 못했때 누가 다시 이러한 행사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들이

다. 학생과에서도 지적했던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의 특징'을 고려한 내용적 고민과 더불어 겨울부터 논의가 된다면 예산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굳이 대학시장을 개방을 꺼론하지 않더라도 대학문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때 학교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문화행사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김소영 기자)

◇'신라문화제' 개최

화랑정신

호국불교사상 계승

천년고도의 신라문화 유적지, 경주시에서는 신라문화제를 재현하고 화랑정신과 호국불교사상의 계승을 목적으로 '신라문화제'를 개최한다. 지난 62년도부터 시작된 신라문화제는 올해로 24회째 맞이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에 걸쳐 행사가 진행됐으며 △첫째날은 서재, 대취타, 바라춤, 청도차산악악 등 △둘째날은 한시백일장, 문화해설 등 △셋째날은 나제, 줄타기, 말씨자랑대회, 한글백일장 등이 열렸다.

한편, 신라문화제가 관의 주최와 주관으로 행사의 본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이 행사로 당시 신라의 복장·문화·역사적배경을 엿볼 수 있으나, 때로 반복되는 내용이 다분히 보여주기식 행사이다"라고 경주시민들은 말하고 있다. 또한 본교의 경우 경주지역에서 적지않은 위치를 차지함에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문화행사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탈패공연에 참가한 한 학생은 "당국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가일뿐이며, 학생들은 그저 관객의 역할만 할 수 있다"고 토로한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대학은 지역의 주체로 나서서 지역문화회성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대학인들부터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함은 주지의 사실이며, 지역주민과의 상호교류·이해 뒷받침될 수 있는 관과 학교당국의 후원이 함께 요청된다.

경주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문화유산과 신라풍습을 연구하는 학술적 문화행사의 개최가 시급한 실정이다.

화랑정신과 호국불교사상의 계승이 목적인 신라문화제가 재정립되기 위해선 관·대학·시민들간의 지역공동체형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박묘선 기자)

메아리

새로운 시작

만여명, 36개학과 7개단대의 규모로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16년간동안 이룩해온 경주캠퍼스의 발전은 결코 태대학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설립 16주년을 맞이한 경주캠퍼스는 현재 새로운 전환기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있다. 교육시장개방과 대학종합평가등으로 시작된 각 대학들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주캠퍼스가 새롭게 도약 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하는 귀로에 서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경주캠퍼스의 당면 과제로는 대학의 심장부인 본관의 건립과 제2캠퍼스로서 지역의 특

성을 살린 학과 및 신설학과의 육성, 우수한 교수충원,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항은 동국대학교라는 틀 속에서 서울캠퍼스와 관계 설정에 있다. ▲지난 11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한 임후보자는 유세문을 통해 경주캠퍼스의 위치를 '서자라고 표현하면서 중추적인 행정체계를 비롯한 적이 있다. 감상적인 그의 표현은 경주캠퍼스의 인이라면 한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그늘진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위치를 감상적으로 피해의식에 가까운 표현으로 비관할 수만은 없다. 좀더 과학적인 인식이 필요할 때다. 동국대학교의 틀 속에서 벗어난 독립이 아닌 서울캠퍼스와의 이원적 체계 속에서 경주캠퍼스의 행정력과 재정력을 높여야 할 때인 것이다. 경주캠퍼스 설립 16주년인 지금 '이젠 다시 시작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 설레게 하고 있는가. (송)



최 결 인 (55)

새로운 변신속에 세계로 도약하는 기업— 해태가 新사고, 新감각의 新세대를 찾습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전환, 행동의 전환이 없이는 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변신으로 일약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는 해태가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감각을 지닌 신선한 젊음을 찾습니다. 지금 해태로 오십시오.

해태그룹 사원모집

1. 모집부문 및 회사		모 집 학 과		모집 인원		응 시 자 격	
응시 직군	모집 회사	인문계	이공계	인원	응시 자격	응시 직군	주 소
무의	해태상사(주)	상경, 이문계열	심유, 화학, 기계, 전자, 식품공학	25명	1. 정규 4년제대학 졸업학과 전공서적 85년 2월 졸업예정자 및 7월입학	시 출	해태그룹 종합조정실 서울·마포구 아포동 140(다보빌딩 2층)
유동	(주)해태유동	상경, 법경, 인문계열	전자계산학		2. 1967.11 이후 출생연차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	경 남	해태 부산지사 부산시 북구 학동동 246-1
진지	해태전지(주)	상경, 법경, 인문계열	기계, 전기, 전자, 산업공학, 식품공학		3. 이공계 응시자는 우대함	경 북	해태 대구지사 경북 경산시 백현동 115-1
식품	해태제과(주)	상경, 법경, 인문계열	기계, 전기, 전자, 산업공학, 식품공학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진 남	해태 광주지사 광주시 북구 양산동 408-2
광고	(주)보영드	상경, 법경, 인문계열	사타디자인학			전 북	해태 전주지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관동동 1가 238-3
금융	미진금융(주)	상경계열	금융, 재무, 기계공학			강 원	해태 원주지사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0-1
건설	해 태 컨 실	상경, 법경계열	건축, 전기, 도시공학			충 청	해태 대전지사 대전시 동구 가양2동 424-1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1994.10.24(월)~10.29(토) 09:00~17:00(단, 토요일은 13:00시까지) 나. 지역별 원서교부처

5. 기타 가. 국가보훈대상자는 증명서류 첨부시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나. 우편접수는 접수하지 않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바람.



해태인력관리위원회